

"신한 불법 계좌조회 여전"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7일 월요일 제3295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4일>

코스피	1886.04	(−29.49)
코스닥	650.45	(−27.80)
금리(국고채 3년)	1.65	(−0.01)
환율(원·달러)	1191.30	(+1.00)



또 뒤집힌 국민안전

지난 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추자도 인근에서 낚싯배 '돌고래호'(9.77t)의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6일 오전 6시 25분께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싯배가 실종된 지 3시간 만에야 중앙구조본부를 구성하고 지휘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낚시어선 돌고래호에 승선한 인원 21명 중 3명만이 일반 어선에 구조 됐다. 해경은 돌고래호 수색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확한 승선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구조된 생존자 1명은 승선객 명단에 없었고, 명단에 있던 4명은 실제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돌고래호에 승선한 8명의 생사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304명의 인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이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안전처가 이번 사고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7월에는 관계부처와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전수조사까지 벌였지만 관광낚싯배 돌고래호의 전복사고를 막지 못했다.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에서 출발한 후 10시간 넘게 통신이 끊겼다가 6일 오전 전복된 채 발견된 전남 해남 선적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탑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해경이 접근하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사진제공=국민안전처

갑질하고 특혜받는 재벌



동반성장위, 이해못할 '동반성장지수' 산출
불공정기업들에 최우수등급… 각종 특혜제공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사진**)가 갑질을 일삼는 재벌 대기업을 동반성장공로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동반성장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동반성장지수'에 따르면 평가 대상 기업 112개사 중에서 17%인 19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9개사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KT,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기업으로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까지 고발한 기업이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과징금 처분에 검찰 고발 검토 중이다. 나머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다.

상식적으로 '착한 재벌'이나 '착한 대기업'이라고 부르기 힘든 기업들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기업은 특히 문제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위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등급으로 성적을 매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영성과와 같은 기업 내부 자료가 드러나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구한다는 명분으로 동반성장위는 심사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며 "실제 심사결과가 공정한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재벌 대기업이 누리는 특혜는 막대하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 관계자는 "도로·터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기본 사업비가 몇천억원 또는 조단위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평점 1점으로 갈린다. 그런데 가점은 최소 2점 이상이다. 결정적인 점수"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최우수 등급의 기업을 우대한다.

국세청은 최우수 등급 기업의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 시 가점을 줘 우대한다. 이 관계자는 "모범 납세자가 되면 국세청 조사를 받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의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해 준다. 우수 등급 기업은 서면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해 준다.

여기에 법무부는 최우수, 우수 등급 기업에 출입국우대카드를 3년간 발급해 준다. 이 카드가 있으면 국회의원, 국빈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의 VIP룸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큰 혜택이다. 재벌 총수가 VIP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 마디로 재벌 총수로서는 폼이 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비밀주의에 막대한 특혜 부여는 동반성장지수 발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 관계자는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기사에 쓰더라도 전혀 무리한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Janghyeon-Yoon, the mayor of Kwang-ju, is suspected of supporting Shinsegae to obtain a patent for duty free shop

윤장현 광주시장, 면세점 특허권 획득 지원 의혹



There have been speculations that the mayor granted favors to kwangju Shinsegae's construction process of a multi shopping mall.

Accordingly, the company's shopping mall construction plan is on the verge of being frustrated by politicians and local merchants.

Shinsegae said that the company expects to employ 2200 people in Kwangju Shinsegae multi shopping mall and have 5400 of permanent workers.

However, it is analyzed by the construction push forward committee that the opening of Gwangju Shinsegae will shut down 714 stores.

The committee said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such problem is due to the favor that Shinsegae received from the mayor. The favoritism that the major is suspected to have provided to the company are ▲mayor's initial suggestion on the multi shopping mall business in kwangju ▲alteration of the usage purpose (hotel + shopping mall) ▲acquisition of patent for duty free shop.

The Committee criticized that such favoritism would cause the fall of the local commercial area(closure of business, bankruptcy) and the removal of small businesses. Meanwhile, Shinsegae has not taken a stance about the issue yet.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광주신세계가 광주광역시와 추진중인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건립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치권과 지역상인들이 반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신세계는 지난 5월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신규 고용창출 인력만 2200여 명이 발생하고 고정근무 인력만 5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입점하면 2380개 업체 가운데 714개 업체가 폐업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진위는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광주시의 입점 특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특혜 의혹으로 ▲윤 시장의 사업 제안 ▲수익성 보장 위한 용도변경(특급호텔+복합 쇼핑몰) ▲면세점 특허권 획득 지원 등을 꼽았다.

추진위는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의 몰락(폐업, 도산)과 소상공인 시장 퇴출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세계 측은 이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정치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동안 당 내부의 부조리와 윤리의식 고갈, 폐쇄적 문화,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해왔다. 순혈주의와 배타주의, 진영 논리로 당의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을 가로막으며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다"며 혁신위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표까지 싸잡아 맹비난했다.

▲ 과거 **일제**가 한국인 소년을 나무에 묶어놓고 참수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일제의 만행이 이슬람국가(IS)에 못지 않았다는 생생한 증거로 평가된다.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21)와 김정원(23) 하사를 만나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켰는데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당연하다"고 말했다.

▲ 남북이 지난달 25일 판문점 고위급접촉에서 합의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한을 합해 2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사회

▲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6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복된 돌고래호 정원은 22명이며 돌고래호가 전남 해남 남성항에서 지난 5일 오전 제주 추자도 부근으로 출발할 당시 신고한 승객 명부인원도 22명이다.

▲ 도르래나 스프링이 장착된 **새총**을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량 새총을 '모의 총포'에 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내년부터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도 발급 사실이 통보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 제도의 편의와 안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체벌과 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남북 실무접촉 하루 앞둔 적십자사 판문점에서 열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대한적십자사에서 관계자들이 이산가족 생사확인 전산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LG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국제가전박람회(IFA 2015)에서 소형부터 대형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경쟁력을 뽐내고 있다.

▲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전자 야심작 **삼성페이**가 서비스한지 보름 가량 흘렀지만 시장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폭스바겐**의 골프와 티구안, 파사트 등 세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판매되며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파사트 2.0 TDI는 854대가 팔려 8월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올랐다.

▲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의 중위권 싸움이 치열해 지고 있다. 한국토요타·한국닛산·혼다코리아는 BMW의 서브브랜드 'MINI(미니)'와 미국 포드 등과 중위권 자리를 다퉈왔다. 8월 프랑스 푸조가 수입차 시장 5위를 기록하면서 경쟁구도는 심화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 4곳의 최대주주 대표자 부실기재를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간 롯데계열사와 같이 최대주주 법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도 공시위반으로 보지 않았고, 공시위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관세청**(청장 김낙회) 직원들이 지난 7월 실시된 시내면세점 심사기간 외부통화를 400건 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오뚜기 창업주인 함태호 명예회장의 손녀이자 함영준 회장 장녀인 뮤지컬 배우 **함연지**씨(24)가 연예인 주식 부자 5위에 올랐다. 6일 재벌닷컴(대표 정선섭)에 따르면 함연지 씨가 지난 4일 기준 보유한 상장 주식 가치는 366억원으로 올초보다 88.5% 증가했다.

▲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뒤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지적이다.

▲ **금융당국**이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주주 변경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신한금융투자 등 자산운용사 3곳을 제재한다.

국제

▲ 

2차세계대전의 혼란을 틈타 수백만명의 유대인을 열차에 실어 죽음의 수용소로 보낸 독일이 이제는 죽음으로 내몰린 난민들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독일은 8000여명의 난민을 우선 받아들이며 '**무제한 난민 수용**'을 선언했다.

▲ 시진핑 주석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30만 병력 감축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군이 현행 7대군구, 18개 집단군 체계를 5대군구, 15개 집단군 체계로 개편하고 지상군 장교 17만여 명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 **일본 경찰**이 실업자 고용 시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홋카이도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납북자 협상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 일본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나치게 중국을 비판하다 참가국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3m 너울에도 '풍랑특보' 없었다

추자도서 낚시배 '돌고래호' 전복
파고 높았지만 기상청 주의만 당부
해경 21명 탑승 추정… 3명만 구조

제주도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5일 오후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에서 시신 10구가 발견됐다.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총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제주해경)에 따르면 시신 10구는 상추자·하추자 연결다리 부근, 추자항과 인근양식장 등 사고 해상 인근에서 발견됐다. 구조된 승선객 3명은 모두 저체온증을 호소해 제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본부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생존자가 어선이 어망(양식장 밧줄)에 걸린 것같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사고 해역에는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3m의 너울이 일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풍랑특보는 내려지지 않았다. 돌고래호 사고당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렸다. 남해안은 비의 강도가 세지 않았지만, 바다와 제주도에는 빗줄기가 갈수록 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저녁 8시 20분에는 제주도 북부와 제주 산간에 호우 주의보가 발효됐고, 추자도에도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6시간 동안 54㎜의 비가 쏟아졌다. 바람도 점차 강해졌다.

초속 10m 안팎의 바람이 불었는데 사고 시점인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초속 12m의 강한 북동풍이 관측되기도 했다. 최고 파도 높이는 2.1m로 측정됐지만 사고 해역에는 너울로 인해 3m의 높은 물결이 일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날씨전문사이트인 '케이웨더'는 "당시는 남해상으로 저기압이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륙보다는 매우 높은 파도가 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풍랑 특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풍랑주의보는 파도 높이가 3m, 바람은 초속 14m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 관측 지점의 수치가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남해에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 것으로 예보하고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결국 배의 운항 여부는 예보보다는 바다 날씨와 배의 안전성을 고려해 선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거기에 사고 해역 수온은 22도로 일반인이 10시간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승객과 승무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 전복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생존자 진술과 지금까지의 해경 조사를 토대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전남 해남 선적 돌고래호 승선객들은 지난 5일 오후 2시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에서 출항해 추자도에서 낚시를 한 다음 다시 해남으로 돌아가기 위해 같은 날 오후 7시~7시25분 추자도 신양항을 떠났다.

신양항에서 같이 출항한 돌고래1호 선장은 기상 악화로 더 항해할 수 없다고 판단, 돌고래호 선장에게 함께 추자항으로 회항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 교신은 돌고래호 선장의 "잠시만"이란 짧은 대답으로 끝났다. 돌고래1호는 오후 7시50분 추자항에 도착한 뒤에도 돌고래호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오후 8시40분께 해경 추자안전센터에 신고했고 추자안전센터는 오후 9시3분께 해경 상황실에 보고했다.

추자안전센터 연안구조대가 사고지점으로 추정되는 예초리 인근 해상에 도착한 건 오후 9시30분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수색은 다음날 오전 6시25분께 추자도 섬생이섬 남쪽 1.1㎞ 해상에서 돌고래호가 뒤집힌 채 발견될 때까지 계속됐다.

6일 오후까지 이모(49·부산)씨, 김모(47·부산)씨, 박모(38·경남)씨 등 승선객 3명이 구조됐고 시신 10구를 발견, 지금까지 찾은 승선객은 모두 13명이다. 나머지 8명은 실종상태다. 하지만 해경 조사 결과 출항 신고 시 제출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한 인원이 달라 생존자와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해경은 이배에 21명이 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獨, 전범국가에서 난민의 희망으로

2차세계대전의 혼란을 틈타 수백만명의 유대인을 열차에 실어 죽음의 수용소로 보낸 독일이 이제는 죽음으로 내몰린 난민들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헝가리를 출발한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의 난민 6000여명이 독일 사알펠트역에 도착했다. 이슬람국가(IS)의 만행과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다. 독일은 헝가리에 남은 1800명의 난민까지 계속해 받아들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제한 난민 수용'을 선언했다.



5일(현지시간) 헝가리를 출발한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의 난민 6000여명이 독일 사알펠트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난민들에게 독일은 구세주나 마찬가지다. 세 살배기 시리아 꼬마가 익사체로 발견된 이후 유럽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가장 먼저 행동한 나라는 독일이다. 난민들은 깔고 앉았던 포장박스를 뜯어 독일에 감사하는 글을 적어 아이들의 손에 들려줬다. 포장박스에는 "고마워요, 독일"이라거나 "독일, 사랑해요"라는 글이 적혔다.

난민들은 도착한 열차역에서 독일 시민들의 환대를 받았다. 독일 시민들은 영어와 아랍어, 독일어로 적힌 환영 메시지를 들고 박수갈채로 난민들을 맞이했다.

오랜 여정에 지친 난민들은 처음엔 오랜만에 받는 환대가 낯선 듯 얼떨떨한 표정이었으나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따뜻한 음료와 음식, 아이들을 위한 인형 등을 받으며 마침내 '꿈의 땅' 독일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일제 만행, IS 못지 않았다

北 영문잡지 '코리아' 8월호 '소년 참수' 사진 최초 공개

과거 일제가 한국인 소년을 나무에 묶어놓고 참수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일제의 만행이 이슬람국가(IS)에 못지 않았다는 생생한 증거로 평가된다.

6일 확인된 북한 영문잡지 코리아 8월호는 '범죄가 들끓는 역사는 결코 감출 수 없다'는 제목으로 지난달에 이어 8·15특집면을 만들고, 충격적인 미공개 사진을 소개했다.



일본군인이 나무에 묶인 한국인 소년을 처형하기 직전의 장면. 이 사진은 북한 영문잡지 코리아 8월호 특집면에 실렸다. /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은 초등학교 나이 정도의 소년을 일본 군인이 막 참수하려는 사진이다. 소년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고, 일본 군인은 일본도를 소년의 목에 내려치기 직전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의관을 정제한 여든살 가량의 노인을 일본인들이 희롱하는 장면이 담겼다.

일본군 복장의 중년인은 자신의 얼굴을 노인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히죽 웃고 있고, 일본 전통 복장의 또 다른 일본인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노인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키가 작은 노인은 당혹해하는 표정으로 이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

이 같은 사진들은 일제의 출판물 검열로 삭제돼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들이다. 북한이 과거 일본잡지 등에서 발견해 이번에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병형 기자

시진핑, 군 30만 감축 선언… 5대군구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30만명의 병력 감축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군이 현행 7대 군구, 18개 집단군 체계를 5대군구, 15개 집단군 체계로 개편하고 지상군 장교 17만여 명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6일 홍콩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시 주석의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에 따라 2개 대군구와 3개 집단군을 해체할 계획이다. 또 장교의 경우 소위에서 대교(한국군 준장격)급 17만여 명을 전역시킬 계획이다.

중국군은 한국군과 달리 집단군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 개 대군구는 병력 3만~5만 명의 집단군 2~3개를 보유하고 있다. 2개의 대군구를 해체할 경우 최소 12만명의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7대군구 중 어느 군구가 해체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선양군구 산하 집단군이 공군 특공대로 전환되고, 난징군구와 지난군구의 1개 집단군이 각각 해병대로 전환될 것으로 전해졌다. 두 군구는 북해함대와 동해함대를 지휘하고 있다.

또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베이징 위수구(경비부대)를 제외한 모든 직할시와 성의 위수구를 해체해 5만명 감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송병형 기자

로또복권 제666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4	6	11	17	28	16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396,901,063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0,997,895
3등	5개 숫자 일치	1,231,074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군복무 보상점… 군은 밀고 여성계는 막고

헌재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 수준 낮췄지만 성사 불투명 여성가족부 등 여성계 반발

국방부가 군복무 보상점 부여제도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군 가산점 제도를 약화시켜 위헌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생각이지만 여성계의 반발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5개 부문 23개 과제, 90개 세부과제에 대한 종합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군복무 보상점 부여제도를 소개했다. 병영문화 혁신 종합 실행계획은 지난해 발생한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8월4일 북한 지뢰도발로 부상한 하재헌 하사를 격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부상 장병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군복무 보상점 부여제도를 수용해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부문에 포함시켰다. 이 제도는 전역장병의 취업 시 5회에 한해 보상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군복무에 대해 사회적 보상을 하자는 취지다.

이는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보다 보상 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다. 1961년 처음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성계의 반발도 보상 수위를 낮춘 이유다. 지난해 병영혁신위는 과도한 보상점 제도를 채택할 경우 여성계의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보상 수준을 과거보다 절반 이하로 낮췄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반대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복무 보상점제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에서 지난 5월 공청회를 통해 이견 조율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해소가 안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 4월 입법을 목표로 이 제도를 추진 중이지만 전례에 비추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2005년과 2008년에는 주성영 의원이, 2007년에는 고조흥 의원, 2012년에는 한기호 의원이 군 가산점 부여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여성계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종합 실행계획 발표를 통해 군생활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카페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장병과 가족 간 소통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올해말까지 장병 수신전용 휴대전화를 생활관마다 1대씩 4만여대 보급하기로 했다. 영상 공중전화기도 연말까지 중대급에 1대씩 7200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안철수, 문재인에 전면전 선포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 지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당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당 내부의 부조리와 윤리의식 고갈, 폐쇄적 문화,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해왔다. 순혈주의와 배타주의, 진영 논리로 당의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을 가로막으며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다"며 혁신위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표까지 싸잡아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그 결과로 정치에서 양비론을 자초하고, 대북 문제와 안보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 기득권 보수 세력들에게 끌려 다녔고 도덕적 우위도 점하지 못했다.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클린 정치를 주도하지 못하는 야당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뒤떨어진 인식과 사고, 병폐들을 걸러내는 것이 당 혁신의 본질이 돼야 한다"며 "혁신의 본질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낡은 인식, 행태, 문화와 같은 체질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낡은 진보 청산이나 당 부패 척결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인데도 그동안의 당내 타성과 기득권에 막혀 금기시돼 왔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당 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낡은 진보나 당 부패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이 육참골단 혁신이다. 육참골단이 정풍운동이고 야당 바로세우기"라고 말했다. 육참골단의 당 혁신을 선언했던 문 대표에 대한 공격이다. 육참골단은 '자신의 살을 베어내 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의미다. 혁신위의 혁신안에서 문 대표의 자기희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비판이 계파싸움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대로 간다면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이라며 "저는 혁신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이지 계파싸움이나 주류-비주류 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와 혁신위는 저를 보지 말고 국민을 봐야 한다. 제게 설명하기보다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추석 이산가족 상봉 200명 규모될 듯

오늘 판문점서 실무 접촉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규모는 남북한을 합쳐 2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7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지난해 2월 행사 때와 비슷한 수준의 상봉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상봉에서는 남측 100명, 북측 100명의 상봉이 이뤄졌다. 장소는 금강산 면회소였다.

정부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 상봉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상봉이 늦어질 경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겹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0주년(10월 10일)을 맞아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나설 공산이 크다.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면 서울 혹은 평양 소재 호텔에서 상봉 행사를 하는 것보다 준비기간이 짧다.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도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가장 우선적인 의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8·15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연내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이다. 한국 적십자사는 지난 1일부터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6만 6000여 명이다.

/송병형 기자

정부 '중국인 비자면제' 검토 착수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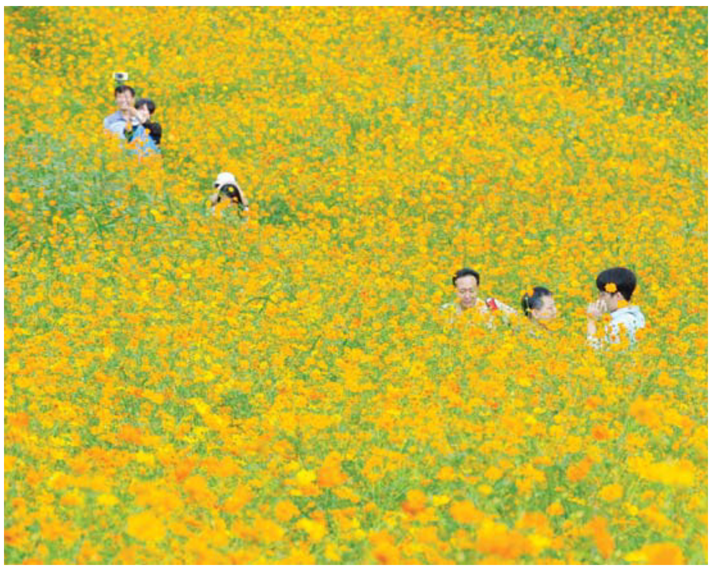
6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한중 일반여권 비자 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대중국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국제이주기구(IOM)의 전문 연구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이 맡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정부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한중간 일반여권 소지자의 비자 면제 필요성과 정치·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여권 비자면제를 최종 목표로 하는 비자 면제 범위의 단기적 확대 방안 도출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적으로는 전면적 수준의 무비자 정책 시행도 염두에 두고, 비자 면제 대상과 범위 등을 점차 늘려나갈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은 2013년 외교관에 이어 지난해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인정하는 등 이미 비자 면제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7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시행할 경우 유커(중국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병형 기자



만개한 황화코스모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들꽃마루에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해 있다. /뉴시스

부모도 자녀 때리면 안 돼

아동복지법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체벌과 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부모 같은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연히 해서는 안될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학대' 대신 더 범위가 넓은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서 폭넓게 아동 보호의 범위를 천명했다.

사실 기존 법률도 부모의 아동학대 행위는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를 열거하면서 형법상 상해와 폭행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이자 대부분 아동의 양육자인 부모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인 81.8%는 부모였다.

친인척(5.6%)과 대리양육자(9.9%)까지 포함하면 97.3%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해자가 됐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은 훈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체벌이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여군 상습 성희롱' 중대장에 강제전역 적법

法 "비위 정도 가볍지 않아"

여군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중대장을 강제 전역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모 부대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이었던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하급자인 여군 중위 두 명과 하사 한 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했다. 다른 여하사에게도 업무를 지적하며 모욕감을 줬다.

A씨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자 해당 부대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성군기 위반, 직무태만 등을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 부대 지휘관은 그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윗선에 보고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전역을 명령했다.



A씨는 "여군들과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다 농담을 한 것인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특히 해당 여군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도 감봉처분 한달 전 결혼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대장 지위를 이용해 여군들을 성희롱한 것은 행위의 반복·지속성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강제전역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내 성폭력 행위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의 특수성과 결합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군 기강과 사기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임관 3년 만에 지휘관 보직을 맡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군 당국의 전역명령 결정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김서이 기자

'무리한 현행범 체포 저지' 무죄

法 "공무집행 적법성 결여"

경찰관이 무리하게 현행범을 체포했다면 이를 저지한 행위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임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가 봉변을 당한 건 지난해 10월 12일이다.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이모 경위가 이날 오전 7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 앞에 출동했다. 곧이어 김모씨를 다짜고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친구인 임씨가 가로막았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범죄자로 단정한 것에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임씨가 이 경위를 제지하면서 팔을 세게 잡아당긴 점을 문제 삼아 입건했다.

박 판사는 "공소사실에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라고 추상적으로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조차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신빙성 없는 경찰 공무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씨가 이씨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공무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어 "임씨가 김씨의 체포를 막으려 이 경위를 폭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서이 기자

"파일 다운로드 시 불법공유 범죄수익 발생"

대법 "추징금 재심리하라"

파일을 돈을 받고 내려받는 때가 불법공유 사이트의 범죄수익 발생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및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받은 파일공유 웹사이트 운영자 4명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해 추징금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웹사이트들은 불법 공유물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계약해 다른 회원이 자료를 내려받을 때마다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눴다. 저작권 보호 요청이 들어와도 무시하거나, 검색 금칙어 우회법을 마련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

1·2심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각각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함께 추징금 189만원~7927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도중에 만든 법인 두 곳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파일 업로드 시점만으로 추징금을 계산했다며 다운로드 시점을 고려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원심은 법인 설립 전 올라온 파일의 범죄수익을 모두 법인이 아닌 운영자들의 것으로 봤는데 해당 파일의 실제 다운로드는 법인 설립 후에도 이뤄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 후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된다. /김서이 기자

국민이 모르는 국민안전처… 혈세만 펑펑

‘돌고래호’ 전복사고서 세월호 데자뷰
안전처 정책, 국민 90% 이상 “몰라”



6일 오후 ‘돌고래호 사고 연고자 대기소’가 마련된 전남 해남군 다목적생활체육관에서 해남군청 직원들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출항한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는 이날 오전 6시 25분께 추자도 남쪽 무인도 섬생이섬 남쪽 1.1㎞ 해상에서 통신이 두절된 뒤 11시간여만에 뒤집힌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세월호 데자뷰가 된 이번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수면위에 떠오른 국민안전처의 실체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이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안전처가 만들어진 이후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올해 국민안전처의 홍보예산은 27억2800만원으로 지난달 말까지 14억3200만원이 지출됐다. 하지만 국민들은 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민안전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거주 10~60대 남녀 대상자 1143명 중 응답자의 53%가 국민안전처에 대해 들어봤다고 대답한 반면, 28.4%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안전처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국민은 8.4%에 불과했다. 안전처 정책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2.9%로 정책홍보나 정책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에 대한 호감도 질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6.3%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 19.1%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처에 대한 신뢰도 질문에는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11.3%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범한 기구이지만 호감도나 신뢰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안전에 대한 정책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안전처가 의뢰해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에서 수행하는 ‘2015년 국민안전처 정책 홍보 컨설팅 및 실행 용역’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서베이 방법으로 수행됐으며 응답률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0.5%p이다.

한편 6일 국민안전처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낚시어선 ‘돌고래호’(9.7톤급)는 처음 22명에서 최종 21명이 탑승해 이중 3명이 구조됐고 10명은 사망 8명은 실종으로 파악됐다.

최초 정확한 실종인원이 파악되지 않은 이유는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부에는 22명으로 기록돼 있지만 해경의 조사결과 이 가운데 4명은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조된 생존자 3명 가운데 1명은 승선원 명부에 기록돼 있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탑승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해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는 여객선 탑승 시 신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또 다시 동일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낚싯배는 예약 인원과 실제 승선 수가 수시로 바뀌지만 선장이 선박 입·출항시 변동 내역을 해경에 제때 알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설명하고 있다. 피해가 커진 데에는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돌고래호 생존자 중 한 명은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해 승객 대부분이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광화문 대형 비눗방울 서울시 추석맞이 전통문화 대축제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가운데 한 참석자가 비눗방울을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응급의료 대불 제도’ 상환율 6.5%에 불과

최근 2년 반 동안 ‘응급의료 대불 제도’의 상환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대불 제도는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갔는데 당장 지급할 돈이 없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제도다.

6일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 6월 응급의료 대불제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115억444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인 7억557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07억8879만원은 상환받지 못했다.

아직 상환하지 않은 사람의 상당수는 응급 의료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산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다.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중 49.4%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였으며 이 중 226명은 월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이어서 월소득이 33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지불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심평원이 심사를 거쳐 대신 지불하면 응급환자는 나중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김서이 기자

檢, 개인정보 빼내 음란광고 발송한 업자 기소

‘060’ 정보 1551만건 도용

날씨와 증권정보 등을 전화로 제공하는 ‘060 부가서비스’ 결제정보를 빼내 음란 스팸문자를 발송한 업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이모(43)씨 등 음란폰팅업체 운영자 3명과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한모(41)씨와 신모(38)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신모(43)씨 등 폰팅업체 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060 서비스 이용자의 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 등을 결제대행업체 직원 한씨에게서 넘겨받거나 업체의 인터넷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몰래 접속하는 수법으로 결제정보 1551만여건을 얻어 스팸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과 음란한 대화, 자취방 엿듣기, 음란소설 읽어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스팸문자 777만6000여건을 발송했다. 단속이나 민원전화를 피하려고 가짜 발신번호를 쓰기도 했다.

몇 초 동안 신호음이 가다가 끊기는 자동발신 시스템, 이른바 ‘원링 스팸’도 결제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팸전화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놓으면 특정한 시각에 자동으로 전화가 걸리는 식이다.

회신전화는 음란폰팅 업체로 연결돼 이용료가 발생했다. 이런 스팸전화를 작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개월 동안 897만6000여명이 받았다.

이씨 등은 폰팅영업을 위해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1360만원을 주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계정 1만2670건을 사들였다. 남의 계정으로 몰래 로그인한 뒤 게시판 등에 음란폰팅 광고글을 올렸다.

합수단은 이들이 2011년부터 4년여 동안 폰팅업체 5곳을 운영하면서 음란한 음향을 들려주고 벌어들인 3억여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서울시, 추석 전 도로시설물 555곳 안전점검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시내 교량과 터널을 포함, 도로시설물 555곳을 안점점검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구조 검토 등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 추석 연휴 이전에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전용도로 11개 노선과 소화전 설비 등 기전시설물 401곳도 점검 대상이다.

시설물 담당직원을 포함한 2인1조 점검팀이 시설물 아래쪽 화재 요인의 방치 여부와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여부 등을 살핀다. 배수시설 막힘과 가로등·조명등 파손, 도로 포장면 파손·침하 등도 점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점검 후에는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안전점검 운영과 시설물 상태를 상세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이 기자

판례로 보는 만화형법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11화 긴급피난>

청주지법 2006.5.3. 선고, 2005노1200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신한금융지주 '불법 계좌조회' 여전"

라응찬 前신한회장 무혐의 처분에 시민단체 "봐주기식 수사" 즉각 반발



'불법 개인정보 조회' 등으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신한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자행한 각종 불법행위가 검찰과 금융당국의 '봐주기'식 수사로 유야무야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배임과 고객정보 불법 조회 등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의 무혐의 판단 근거로 ▲라 전 회장 등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정보를 조회한 증거가 없고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도 조회 대상이 된 사실을 확인, 정보 조회가 '통상적인 감사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 등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인 박지원, 박영선, 박병석, 정세균, 정동영 의원 등 정치인들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자료와 신한은행 전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정치인이 아닌 '동명이인'이었다고 밝혔다.

회사자금 횡령, 차명계좌 거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신한사태 관련 고발단체인 참여연대와 다른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반면 신한사태의 책임자의 엄정한 수사나 기소 소식은 전무하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검찰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 신한금융지주의 불법 계좌 조회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신한사태 당시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형사고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철저히 사조직화해 신한은행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 무단 조회한 행위가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서진원 전 행장 하에서도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에 신한은행이 직원 가족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에 대해 고발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금융당국의 조사에서도 확인됐다"며 "올해만 최소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당국의 이 같은 대응은 수천만에 이르는 신한금융 거래 고객의 잠재적 피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연임 의사를 보인 라 전 회장과 차기 회장직에 관심을 가진 신 전 사장 사이에 고소·고발과 폭로전이 발생한 것.

양측 모두 비자금과 차명계좌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이 라 전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월 이 전 의원에게 비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변액보험, 설명 불충분 '원금손실 불만' 급증

관련 민원 꾸준히 증가 추세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뒤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 이외 투자상품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민원은 1만6153건이다.

이는 이 기간동안 예금을 제외한 전체 투자상품과 관련된 민원(1만9472건)의 82.9%에 달하는 규모다.

금감원에 접수된 투자상품 민원 10건 중 8건 이상이 변액보험 관련된 불만인 셈이다.

특히 투자상품 민원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변액보험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에는 2682건이었지만 2012년 3167건, 2013년 3557건, 2014년 4497건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225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민원이 많은 이유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꼽고 있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한 뒤 이익이 생기면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이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어도 해지 때는 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

실제로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의 5년 이내 해지 상품 환급률은 79.3%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의 펀드 관련 민원은 2011년 251건에서 2012년 188건, 2013년 135건, 2014년 136건으로 감소세다.

증권사 등의 펀드 관련 민원도 2011년에 496건에서 2012년 441건, 2013년 350건, 2014년 192건으로 계속 줄었다.

신학용 의원은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보험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변액보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보험 상품별로 불완전판매율을 따로 공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자익 기자 jikoo8598@



한국투자證, 가치투자 거장에게 듣는 '온라인 투자설명회'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증권방송 이프렌드에어(eFriend Air)를 통해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가치투자 거장과 함께하는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투자설명회는 '진정한 가치투자'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관리·신고 허술' 자산운용사 3곳 제재

자산운용사들이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주주 변경 신고를 누락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하고 4건의 경영유의 처분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1회당 20만원 이상을 제공하면서 사전승인이나 기록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또 주식 대량매매 거래를 하면서 증권사 직원과 매매물량, 단가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먼저 확정한 뒤에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식 사전자산배분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 업무를 수행할 때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도 3차례나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1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매매를 한 신한금융투자의 간부급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징계(견책)조치를 의뢰하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산장비 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구자익 기자

금융위, 우리은행 지분매각 협상 전담팀 구성

아부다비투자공사(ADIC) 등 중동의 국부펀드들이 '우리은행 민영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중동의 국부펀드들과 우리은행 지분 매각 협상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ADIC.두바이투자청(ICD).쿠웨이트투자청(KIA) 등 중동지역 국부펀드와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실무협의단 성격의 '워킹그룹'을 함께 가동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실무협의단 성격의 워킹그룹을 중동 국부펀드들과 가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은행 지분 매각 조건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리은행 민영화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ADIC는 직접 우리은행 측에 지분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왔다. ADIC는 자산이 900억달러에 달한다. /구자익 기자

경기 북동부 아파트, 청약 열기 '후끈'

별내선 착공 등 교통망 확충
운정신도시 첫 순위내 마감
저렴한 분양가도 인기 한 몫
다산, 광교보다 400만원 싸



대림산업이 공급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의 견본주택에서 방문자들이 상담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 3일 2순위 청약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대림산업 제공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과거 비인기 지역이었던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 공급된 단지들이 순위 내에서 청약이 마감되고 있다.

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계약을 시작한 대우건설의 '구리 갈매 푸르지오'의 경우 약 1주일만에 921가구가 모두 완판됐다. 특히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142㎡의 중대형으로만 구성됐다.

또 자연&롯데캐슬은 844가구 모집에 3722명이 몰렸다. 자연&e편한세상도 986가구 모집에 3232명이 청약을 했다. 자연&e편한세상은 지난 7월 미계약분 59가구에 대한 추가 청약에서도 78.76대1의 경쟁률 기록했다.

앞서 지난 5월에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공급한 '자연&롯데캐슬'과 '자연&e편한세상' 공공분양아파트는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운정신도시 롯데캐슬파크타운1차'도 지난 4월에 1·2순위 청약결과 1040가구 모집에 총 1783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1.71대 1을 기록했다. 운정신도시는 앞서 2009년 '한빛마을 5단지 캐슬&칸타빌(1.55대 1)'이후 5년간 순위내 청약을 마감하지 못했던 곳이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인기는 최근에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림산업이 지난 3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는 최고 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순위 내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앞서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도 이 단지의 접수율은 90%에 달했다.

같은 날 청약을 실시한 현대산업개발의 '갈매역 아이파크'도 5개 주택형(총 7개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 경기 구리갈매지구 S2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총 1134가구 모집에 2422명이 몰렸다.

대우건설의 '남양주 마석 푸르지오'도 지난달 말에 평균 1.2대 1의 경쟁률로 전타입이 마감됐다.

경기 동북부 지역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지역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고양시가 108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구리 1073만원, 남양주 905만원, 김포 981만원, 양주 831만원, 의정부 829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경기 남부권의 분양가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남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43만원에 달했고 하남(1312만원)과 수원(1236만원) 등도 모두 북동부 지역보다 비싸다.

편리한 교통망도 호재다. 지하철 8호선 연장선으로 불리는 별내선은 오는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 전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총 1조28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별내선(총 길이 12.9㎞)은 8호선 암사역에서 중앙선 구리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다산신도시를 경유해 경춘선 별내역까지 연결된다.

특히 별내선 개통 혜택을 받는 다산신도시는 광교신도시보다 3.3㎡ 집값이 400만원가량 저렴하다. 신분당선 개통으로 30분대 강남 진입이 가능한 광교신도시의 3.3㎡당 집값은 1500만원을 넘는다.

다산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는 "타 지역은 올 초부터 청약경쟁률이 높았지만 전통적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경우 순위내 마감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특히 별내선 혜택을 받는 다산신도시의 경우 인근에 규모가 큰 단지가 이미 들어서 있어 수도권 위성도시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 동북부는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며 "매입 이전에 신설될 예정인 교통망 등 다양한 개발호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뉴스테이 2차, 롯데·우미건설 컨소 선정

롯데, 장기임대 희망자에 우선
우미, 임대료 1년 선납시 할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2차 공모 사업자에 롯데건설과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주택 2차 공모 심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롯데건설은 대한토지신탁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우미건설은 KB부동산신탁과 손을 맞잡았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화성동탄2 A-95블록(4만4347㎡)에 전용면적에 60~85㎡ 규모의 아파트 612가구를 짓는다. 토지가격은 829억원이다.

롯데건설은 4베이 위주로 세대평면을 배치하고, 각 세대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극대화하도록 단지를 배치했다. 특히 장기(8년)임대 희망자에게 우선공급, 임대료 인상률 할인 등 적용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롯데건설은 임대 특화서비스로 생활가전 렌탈과 카쉐어링, 입주자 멤버십카드 등을 제공하고, 문화강좌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충북혁신도시 B-4블록에 전용면적 60~85㎡짜리 1345가구를 건설한다. 토지가격은 211억원이다. 임차인 가족구성에 맞는 다목적 알파룸 등 공간특화 설계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또 임대료 1년 선납시 할인(3%)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우미건설은 자녀교육특화 서비스로 국공립어린이집 추진과 영어마을, 독서실 등을 운영한다. 이와함께 주거 특화 서비스로 게스트하우스와 피트니스센터, 쇼핑카트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인 뉴스테이 사업으로 LH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리츠를 활용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을 거쳐 리츠를 설립하면 출자여부를 확정한다"며 "이후 사업약정 체결, 토지매매계약, 인허가·착공,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자익 기자

견본주택 개관 3일 만에 2만명 몰렸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청계'
지하철 2·5호선 더블역세권
분양가 3.3㎡ 당 1650만원



6일 현대건설이 선보인 '힐스테이트 청계'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청계' 견본주택이 북새통을 이뤘다.

현대건설은 지난 4일 개관한 '힐스테이트 청계'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3일 동안 2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6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청계는 동대문구에서 3년 만에 선보이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단지다.

게다가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이 가까운 더블역세권 단지다. 지하 3층~지상 30층짜리 8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40~84㎡ 764가구 중 50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강승우 현대건설 소장은 "최근 3년 동안 동대문구에 새아파트 공급이 400여가구에 불과했고 더블역세권에 청계천까지 가까워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도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인근 브랜드 새아파트에 비해 2000만~3000만원가량의 경쟁력을 갖춰 청약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는 3.3㎡당 1650만원선이다.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이며, 계약기간은 22~24일까지 3일간이다. 입주는 2018년 6월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번지(현장 부지)에 마련됐다. /구자익 기자 jikoo8598@

대형건설사 하반기 채용 규모
1240명 예상 전년比 10% 늘 듯

국내 대형건설사들의 채용 규모가 예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건설사들의 공채 예상 인원은 총 124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23명)에 비해 10%가량 늘어난 규모로 건설 경기 회복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증가 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채용규모를 늘린 곳은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다.

대우건설은 15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70명)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다.

포스코건설도 지난해(50명)보다 두 배 늘린 100명 안팎의 직원을 뽑는다. 자연 퇴직에 따른 충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것이라는 게 포스코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자익 기자

OLED 디스플레이, LGD 입김 세진다

통큰 투자로 IFA서 기술력 과시
미래형 OLED '리더' 자리매김
다양한 분야 적용 영향력 확대



LG디스플레이의 111인치 웨이브 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제공

LG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과감한 투자는 물론 소형부터 대형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래형 제품 등의 기술력을 선보이며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국제가전박람회(IFA 2015)에서 다양한 OLED 디스플레이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LG디스플레이는 65인치 초고화질(UHD·3840×2160) OLED 3장을 이어 붙여 만든 111인치 'S'자 형태의 '타일링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 제품은 기존의 고정된 디스플레이 개념을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OLED의 특성을 보인 제품이다.

또 LG디스플레이는 두께가 5.3㎜에 불과한 55인치 양면 디스플레이도 처음 선보였다. 이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보다 얇고, 무게도 약 12㎏에 불과해 천정, 기둥, 벽면 등 어디에도 디스플레이 설치가 가능하다. 벽지처럼 탈부착이 가능한 두께 1㎜ 이하의 55인치 월페이퍼 OLED도 전시했다.

최근 OLED 디스플레이는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등 모바일 기기는 물론 주요 TV 제조사들도 OLED 패널을 적용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소형 OLED 패널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중대형 패널까지 시장에 공급하는 제조사는 LG디스플레이가 유일하다.

IFA 2015에서 OLED TV를 공개한 일본의 파나소닉도 LG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사용했다. OLED TV 출시를 예고한 중국의 스카이워스와 콩카도 LG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 업계는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할 수 있는 OLED 기술을 보유한 LG디스플레이가 당분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액정표시장치(LCD)는 사실상 중국 업체와의 기술력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OLED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OLED는 기존 디스플레이 기술은 물론 화학기술까지 필요하다. 오랜 시간 역량을 집중한 LG디스플레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향후 웨어러블 제품에서부터 책상, 자동차의 창, 건물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구현되는 제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OLED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페이 서비스 보름… 갈수록 긁기 어려워진다

갤S6 등 지원모델 판매부진
정용진 'SSG 페이'로 도전
해외선 '애플페이' 경쟁 난항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전자 야심작 삼성페이가 서비스한지 보름 가량 흘렀지만 시장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를 기대만큼 흥행시키지 못했고 후속작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막혀 국내 보급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삼성페이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를 선보여 사촌형제지간에 밥그릇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 부회장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SSG페이를 출시하고 삼성페이를 견제하고 나섰다.

때문에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마트, 스타벅스 등 이른 바 신세계 계열 유통점에서는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세계그룹에서 SSG페이의 확산을 위해 삼성페이와 제휴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SSG페이를 통해 자사 고객들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외상황도 밝지만은 않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삼성전자 주요 해외 법인의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는 28일 삼성페이의 북미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치명적이다. 삼성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해당 기기의 보급률이 낮다는 점이다.

여기에 미국 최대 통신업체인 버라이즌이 삼성페이 베타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버라이즌은 미국 내 가장 넓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선 데이터 공급업체다. 국내 통신시장의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과 비슷한 규모다.

때문에 미국 언론사들은 삼성페이의 베타서비스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삼성페이가 베타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버라이즌은 제외"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버라이즌은 '아직 시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 판매 촉진과 애플페이에 대항하기 위해 삼성페이를 선보였지만 지원단말기 보급률과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IFA서 빛난 LG 올레드 '밤하늘의 별' LG전자 4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 2015에서 '밤하늘의 별'을 컨셉트로 한 올레드 TV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LG전자는 올레드 TV 64대를 돔 형태로 배치했다. 올레드 TV 로는 깜깜한 밤하늘의 영상을 상영해 완벽한 어둠 속(블랙)에서 또렷하게 빛나는 별을 표현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진정한 블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LG전자 "올레드 TV로 프리미엄시장 재편"

권봉석 HE사업본부장
"하반기 라인업 다양화
상반기 5배 판매 도전"



LG전자가 올레드 TV를 앞세워 세계 프리미엄 TV의 경쟁구도를 재편한다.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가전박람회(IFA) 2015에서 권봉석 LG전자 HE사업본부장(부사장·사진)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하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올레드 TV를 상반기 대비 5배 이상 판매할 것"이라며 "지금이 올레드 TV 대중화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는 올레드 TV를 1분에 1대 이상 판매하는 것으로 올레드 TV가 차세대 TV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다.

LG전자는 올 하반기 HDR 기술을 적용한 올레드 TV와 한층 다양해진 올레드 TV 라인업을 앞세워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하반기 들어 평면 울트라 올레드 TV, 4㎜대의 얇은 두께를 적용한 올레드 TV 등을 선보이며 전체 올레드 TV 라인업을 지난해 대비 두 배로 늘렸다.

LG전자는 고객들이 다양한 생활환경에 맞춰 올레드 TV를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은정 기자

추석 앞두고 협력사 물품대금 조기 지급

LG 1조5000억·현대차그룹 1조523억원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회사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한다.

LG그룹은 협력회사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해 총 1조5000억원의 납품대금을 추석 명절 전 모두 지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명절을 맞아 원자재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중소 협력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LG측은 설명했다.

LG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도 각각 1조10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했었다.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하우시스, LG유플러스 등 계열사들은 독거노인과 아동복지관 등 지역 사업장 인근의 소외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을 앞두고 ▲송편나눔 ▲생활용품지원 ▲자선 바자회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친다.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계열 4사도 추석을 맞아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을 진행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523여억원을 당초 지급일 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

삼성그룹은 물품대급 조기지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올해도 선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마당서 보드 타고 잔디밭에서 나들이

르포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가봤더니

평일엔 연수시설·주말엔 '힐링캠퍼스'
접근성 좋고 수준급 공연도 관람 가능

지난 5일 경기도 용인 서천에 위치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곳곳에서는 킥보드 타는 아이들과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가족, 실내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곳 인재개발원은 주중에는 교육을 받는 임직원들의 연수시설로 운영되지만 주말에는 이처럼 임직원 가족들을 위한 힐링캠퍼스로 탈바꿈한다.

일반적으로 연수원이 산 속에 위치한 것과 달리 지난해 6월 개원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은 주위에 아파트와 사업장이 있는 도심형 연수원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이곳은 올해 3월부터 주말에 힐링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가족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된다.

힐링캠퍼스는 마음 챙김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삼성전자 임직원 가족 6200여명이 참여했다. 다양한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비움과 채움', 1박 2일 동안 부부 간 소통의 시간을 갖는 '부부愛(애) 힐링스테이', 산책과 독서 등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는 '주말 休(휴)나들이' 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가족들은 강사의 안내나 영상 프로그램 재생을 통해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날 교육동에서는 영상을 재생해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었다.




주말 경기도 용인 서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전자 임직원과 가족들이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왼쪽), 휴(休)파크에서 자연을 즐기고 있다.(오른쪽) /삼성전자 제공

교육동에서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곳에는 잔디밭이 있다. 휴파크라 불리는 야외 학습장에서는 가족들이 산책이나 공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날씨가 좋을 때는 이곳에서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긴다.

강당동은 1층 대강당, 2층 콘서트홀로 구성돼 있다. 이날 오후 대강당은 애니메이션을 관람하는 가족들로 붐볐다.

이날 국립합창단의 공연이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콘서트홀은 1200석 규모로 월 1~2회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문화공연을 열고 임직원과 가족, 지역주민들과의 열린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공연을 관람한 직원 임모씨는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이렇게 해주니 좋다"며 "수준급의 공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건물 앞에는 삼성그룹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人材第一(인재제일)'이 새겨진 돌이 있다. 임직원은 힐링캠퍼스를 통해 정신과 활력을 재충전하고 가족들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낸다. '인재제일'을 생각하는 삼성의 가치가 힐링캠퍼스에 녹아 있었다.

/임은정 기자 eunj71@metroseoul.co.kr

폭스바겐 3종사, 한국서 꾸준한 인기

골프·티구안·파사트 올 누계 판매량 선두

폭스바겐의 골프와 티구안, 파사트 등 세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판매되며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파사트 2.0 TDI는 854대가 팔려 8월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올랐다. 골프 2.0 TDI는 740대가 팔려 3위를 기록했다.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은 473대가 팔려 7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베스트셀링카 탑10에도 폭스바겐이 가장 많은 3모델의 이름을 올렸다.

아우디(A6 35 TDI, A6 40 TDI 콰트로), 메르세데스-벤츠(C 200, C 220 d), BMW(320d, 520d x드라이브)는 각각 2모델씩 탑 10 안에 들었다. 푸조는 2008 1.6 e-HDi 차량이 10위를 기록했다.

순위 10위권 모델의 8월 브랜드별 판매실적은 폭스바겐 2067대, 아우디 1262대, 벤츠 1024대, BMW 974대, 푸조 441대 순이었다.

올해 누적 판매량에서는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이 6069대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골프 2.0 TDI는 4728대로 2위, 파사트 2.0 TDI는 3988대로 5위를 차지했다.

누계 글로벌 탑 10 모델에는 BMW가 520d, 320d, 520d x드라이브 3종의 이름을 올렸다. 아우디(A6 35 TDI), 렉서스(ES300h), 벤츠(E 220 블루텍), 푸조(2008 1.6 e-HDi)는 각각 1대씩 톱 10 안에 들었다.

브랜드별 누적 판매실적에서도 폭스바겐은 1만4785대로 1위를 달렸다. 3종을 올린 BMW는 1만661대가 팔려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아우디 4571대, 렉서스 2680대, 벤츠 2567대, 푸조 2466대로 집계됐다.

한국 시장에서 폭스바겐 3종사의 지속적인 질주 요인으로는 높은 연비와 가격 대비 성능 만족도 등 효율성이 꼽히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전략적으로 펼치는 마케팅 공세도 꾸준한 판매실적에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출범해 올해 한국법인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폭스바겐은 2004년 929대 판매에서 지난해 3만719대를 팔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누적판매 10만대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4월 누적판매 13만대를 돌파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달 20일까지 전국 36개 전시장에서 패밀리세단 시승 행사를 진행한다.

/이정필 기자 roman@



폭스파겐 7세대 신형 골프

SK,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하반기 채용

대졸 신입 1500명 규모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시작

SK그룹이 하반기 채용과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규모를 확대했다.

SK그룹은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오늘(7일)부터 시작하고, 청년들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SK그룹의 각 관계사 채용 규모를 취합한 결과 공채와 수시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규모는 총 1500여명이다. 이는 지난해 SK그룹이 채용한 1300명보다 15% 증가한 규모다.

당초 SK는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연간 7000여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채용계획을 8000여명으로 늘렸다. 이 같은 채용 확대는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그룹 최고경영진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K그룹의 대졸 신입공채는 채용사이트(www.skcareers.com)을 통해 7일부터 18일까지 원서접수에 들어간다. 서류 및 필기전형(SK종합역량검사), 면접을 거쳐 12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펙 없는 서류전형' 방침에 따라 입사 지원서에 외국어 성적, IT활용능력, 해외경험, 수상경력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도 부착할 필요가 없고, 학력과 전공 등 최소한의 기본 자격요건만 기재하면 된다.

아울러 SK그룹은 각 관계사와 협력업체, 대전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SK는 약 300여개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6개월 일정으로 매 기수별 1000명의 인턴을 선발한다. /조한진 기자 hjc@

세계 일류 요리사와 가상현실 체험 결합한 쿠킹 쇼

삼성전자, IFA서 '시내 드 셰프'

삼성전자는 4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 '클럽 드 셰프' 소속 세계 최정상 셰프들이 직접 선보이는 쿠킹 쇼 '시네 드 셰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 '셰프컬렉션'의 제품을 사용해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완성된 요리의 시식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관람객들은 가상현실 헤드셋 삼성 '기어 VR'를 통해 셰프들이 밭에서 신선한 농작물을 수확하고 '셰프컬렉션' 제품들로 요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경험을 했다.



삼성전자 전시장 씨티 큐브 베를린에서 이충후 셰프(왼쪽부터), 삼성 '클럽 드 셰프'의 미쉘 트로와그로와 엘레나 아르삭, 임기학 셰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번 쿠킹 쇼는 '클럽 드 셰프' 멤버 외에 유럽과 한국의 스타 셰프들이 초청돼 지역별 특색을 살린 요리를 함께 선보였다.

지난 4일 쿠킹 쇼 첫 날, '클럽 드 셰프'의 대표 셰프인 미쉘 트로와그로는 '셰프 컬렉션' 냉장고의 미세정온기술로 보관된 대구를 활용한 요리를, 엘레나 아르삭은 고메 베이퍼 기능이 적용된 '셰프 컬렉션' 전기오븐을 사용한 랍스터 요리를 선보였다.

5일에는 한국의 이충후, 임기학 셰프는 행사장에서 백김치 등 한국 고유의 음식과 어우러진 퓨전 요리를 통해 솜씨를 뽐냈다.

/임은정 기자 eunj71@

日 토요타·닛산·혼다… 수입차 중위권 싸움

푸조, 8월 5위 오르며 중위권 경쟁 가세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의 중위권 싸움이 치열해 지고 있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일본 업체 '3사'인 한국토요타·한국닛산·혼다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올해 1~8월 기준으로 11.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한국토요타는 '토요타'와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를 바탕으로 일본 업체 중 가장 잘 나가고 있다. 한국토요타는 올해 1~8월 9526대를 판매했다. 한국토요타의 국내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6%로 일본 브랜드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토요타는 BMW의 서브브랜드 'MINI(미니)'와 미국 포드 등과 중위권 자리를 다퉈왔다. 하지만 8월 프랑스 푸조가 올해 처음으로 수입차 순위 5위를 기록하면서 경쟁구도는 심화되고 있다. 푸조의 약진으로 토요타는 6위로 밀려났다. 이달 푸조는 663대, 토요타는 578대가 팔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8월 푸조의 견조한 판매실적은 공식 수입원 한불모터스가 올해 시승행사·프로모션·미디어광고 등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인 결과"라며 "토요타는 미니, 푸조, 포드 등에 맞서 중위권 유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타 렉서스 ES300h.

한국닛산은 닛산 브랜드의 약진으로 토요타의 뒤를 잇고 있다. 닛산은 8월 알티마·캐시카이 등 476대를 판매해 BMW 미니를 제치고 국내 수입차 시장 8위에 올랐다. 닛산의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은 3863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4% 증가한 수치다. 한국닛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6% 수준이다.

한국닛산 측은 "닛산은 알티마·캐시카이 등의 판매 호조로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며 "인피니티는 개별소비세 인하분 반영 후 부쩍 많은 고객들이 인피니티 전시장 방문하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고 있어 상황이 좋다"고 전했다.

혼다코리아는 같은 기간 3172대를 판매해 31.0% 늘었다. 혼다는 어코드, CR-V가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지만 라인업이 토요타와 닛산에 비해 적어 일본 브랜드 중 가장 낮은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신형 스파크, 경쟁차 모닝과 비교시승회


5일 '신형 스파크 고객 비교 시승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스파크를 시승하고 있다.
/한국지엠 제공

한국지엠은 경기도 화성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KATRI)에서 '더 넥스트 스파크'와 경쟁차량 간의 제품력을 직접 확인해보는 고객 비교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참여를 통해 행사에 초청된 150명의 고객들은 전날 쉐보레 레이싱팀과 함께 슬라럼(지그재그 코스를 달리는 경주)과 고속 주행, 가속·브레이킹, 원선회 등의 비교 시승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FCA)과 저속 주행 편의성을 높인 시티모드 드라이빙을 시연해 참가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한국지엠은 전했다.

8월부터 출고가 시작된 신형 스파크는 견고한 차체, 고효율 에코텍 엔진, C-테크 무단변속기 등을 앞세워 판매 첫 달 국내 경차 시장 1위에 올랐다.

이밖에도 신형 스파크는 FCA, 차선 이탈 경고(LDW), 사각 지대 경고(SBSA) 시스템, 초고장력 강판 적용 비율 72% 등 안전성을 바탕으로 높은 상품성을 갖췄다.

/정용기 기자

현대차 '올 뉴 투싼' 中 상륙… 본격 판매



현대자동차는 중국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올 뉴 투싼'(사진)을 출시했다.

투싼의 중국명은 ix35로 5년 만에 중국 SUV 시장에 상륙했다.

6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국 합작법인 북경현대는 전날 중국 청두시 세외도원 대극장에서 노재만 중국전략담당 고문, 이병호 북경현대 총경리 등 회사 관계자와 정부인사, 딜러 대표, 기자단 등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형 신형 투싼의 신차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중국형 투싼은 ▲1.6 터보 GDI 엔진 및 7단 DCT ▲안전사양 등이 적용됐다.

이 총경리는 "중국형 투싼은 북경현대 브랜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모델"이라며 "디자인, 주행성능, 안전성 등 기술력이 집약돼 북경현대의 성장속도에 가속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중국형 투싼의 고객층을 빠링허우(80년 이후 출생)·중고소득층으로 잡았다. 현대차는 중국형 투싼이 연간 15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고객 체험활동 ▲디지털·제휴 마케팅 ▲광고 제작 ▲스포츠·문화 활동 후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용기 기자

타이어 빅3, 한국·넥센 '웃고' 금호 '울고'

금호, 직장폐쇄 결정 하반기도 영향 미칠 듯



국내 타이어업체 빅3(한국·금호·넥센)가 3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리면서 하반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호타이어는 노동조합의 역대 최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막기 위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8월 11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부분파업과 8월 1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면파업으로 총 2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이 전날 열린 16차 교섭에서 노조에게 제시한 내용은 ▲일당 2950원 정액 인상(4.6% 인상)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합의에 따른 일시금 300만원 지급 ▲2015년 성과배분 (연말 연간 실적 최종 합산 후 지급) ▲무주택 융자 금액 상향 등이다. 하지만 노조는 일시금 지급액 상향과 수당신설 등을 요구하며 사측 안을 거부했다.

노조의 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인해 금호타이어는 지금까지 940억원의 매출손실과 제품 공급 차질로 인한 대외 이미지·신용도 하락으로 경영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상반기 매출 1조5388억원, 영업이익 992억원, 당기순이익 2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29%, 영업이익은 50.02%, 당기순이익은 73.70% 줄었다.

한국타이어 노사는 금호타이어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부터 ▲생산기능직 기본급 5.8% 인상 ▲단협 체결 시 생산기능직 제도개선 격려금 3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두고 노조 찬반투표가 시작됐다. 이번 투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앞서 한국타이어 노사는 생산기능직의 기본급을 3.94% 인상하고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가 지난달 말 조합원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찬반 투표에서 타결돼 원만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상반기 매출 3조1063억원, 영업이익 4041억원, 당기순이익 31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8%, 20.98%, 10.73% 줄어든 규모다.

넥센타이어 노사는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다. 올해 임단협도 지난해에 이어 2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기 기자

SK플래닛 '시럽 스토어', 중소 프랜차이즈 확대

SK플래닛(사장 서진우)은 통합 O2O 마케팅 솔루션 '시럽 스토어'를 중소형 프랜차이즈로 본격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SK플래닛은 전국 약 4만1000여곳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해 온 '시럽 비콘 서비스'의 노하우를 통해 중소 상인에게 최적화된 O2O 솔루션 시럽 스토어를 선보인 바 있다.

사측은 최근 외식, 음료, 치킨, 일본식 선술집, DIY캔들 등 중소형 프랜차이즈들과의 제휴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약 40여개 브랜드 전국 2000여 매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K플래닛은 지난 1년 간 모바일 지갑 시럽 월렛과 통합 마일리지 OK캐쉬백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장의 멤버십 서비스, 쿠폰/이벤트 혜택, BLE 광고, 모바일 전단 등을 제공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롯데 눈감아 준 금감원

최대주주 부실기재에도 공시위반 조치도 안해 "대기업 감독 강화 필요"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 4곳의 최대주주 대표자 부실기재를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6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전서갑)에게 제출한 공시위반 조치 종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 4곳의 최대 주주인 롯데홀딩스, L제2투자회사 등에 대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정정공시 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간 롯데계열사와 같이 최대주주 법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도 공시위반으로 보지 않았고, 공시위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 작성지침에는 최대주주 관련 공시기준을 통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공개하는 법인의 주요 경력을 명시하고 있다. 법인의 개요는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최근 5년간 조치를 내린 공시위반 268건 중 대기업은 단 7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경고와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불과했다.

박병석 의원은 "시장 투명성을 위해 공개범위를 설정해 놓고도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조차 알 수 없고 기업들 스스로의 정정공시를 통해 서만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 대상 기업 모두를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업집단, 순환출자구도가 복잡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추석선물, 정관장으로 하세요" KGC인삼공사 정관장(대표 김준기)이 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추석선물세트 소개와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국 정관장 로드숍과 백화점, 대형 마트 등에서 홍삼톤 골드(30포), 홍삼톤마일드(60포), 홍삼정에브리타임(30포), 황진단(12/30환), 알파프로젝트 5종 등을 10% 할인 판매한다. /KGC인삼공사 정관장 제공

미래부, 홈앤쇼핑 횡포·탈법 방치

중기상품 정액방송 편성 백수오 수수료 50% 챙겨

미래부 시정명령 보고서 작성만 하고 공식화 안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가짜 백수오 수수료를 50% 챙긴 홈앤쇼핑(대표 강남훈)의 횡포와 탈법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비례대표, 새누리당)의원실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백수오를 포함해 7개의 중소기업 제품, 약 400억원 이상을 '정액방송'으로 편성했다. 정액방송이란 황금 시간대에 방송 시간당 판매액에 상관없이 일정수수료를 TV홈쇼핑에 지불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홈앤쇼핑 승인 당시 승인장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품과 관련해서는 정액방송을 편성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홈앤쇼핑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백수오' 등의 중소기업 제품을 대형 벤더인 서OO O과 하OOO 등을 통해 납품하도록 해 이를 대기업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통해 정액방송을 진행했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율 측정시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등 편법 운영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지난 5월 미래부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당시 해당업체가 정액으로 홈앤쇼핑에 전달한 평균 수수료는 약 40% 중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그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 방송법 제99조에 의거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겠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공식 문서화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4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길 기자

이랜드그룹, 신입·인턴 등 2000여 명 채용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하반기 신입과 인턴 등 20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이날부터 이달 30일 오전 10시까지 그룹본부, 이랜드월드(패션), 이랜드리테일(유통), 이랜드파크(외식·건설), 이랜드시스템스 등 6개 사업 부문의 하반기 공개채용 서류를 접수한다.

부문별로는 ▲그룹 본부 전략기획, 재무 및 자금부문 ▲패션사업부 패션 브랜드매니저, 상품기획, 글로벌 소싱과 프로덕션 부문 ▲유통사업부 패션플로어매니저, 모던플로어매니저, 하이퍼매니저와 하이퍼 상품기획(MD) 부문 ▲외식사업부 외식브랜드 매니저 ▲이랜드시스템스 정보전략, 시스템엔지니어(SE), 인프라스트럭쳐엔지니어(IE) 부문▲이랜드건설 건축시공, 전기시공, 기계시공, 토목시공, 글로벌소싱, 부동산 개발 부문 등이다.

공채 지원 시 학부성적과 어학성적의 제한은 없으며 사업부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랜드그룹은 신입·인턴 공채 400명과 함께 1600명 이상의 현장 관리직을 매월 수시로 채용할 계획이다.

AK플라자, 11일부터 추석선물세트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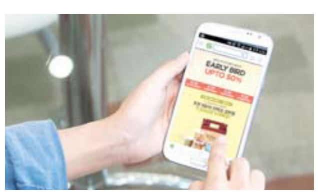
AK플라자(대표 정일채)는 11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양평군 '개군한우 세트'(18만~75만원), 영주시 '참사랑 사과 작목반'의 사과세트와 사과·배 혼합세트, '완도산 참전복세트'(15만~22만원), '제주 생물갈치 특대세트'(25만원) 등에 판매한다.

4명의 전문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와인세트 8종과 세계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 수상자 등 6명의 대표 로스터들이 로스팅한 원두세트 등도 선보인다.

추석선물도 '모바일 쇼핑'이 점령

G마켓 모바일 매출 3배 이상 늘어



아동한복·소품이 G마켓(대표 변광윤) 내 추석 상품 모바일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또 추석 상품의 모바일 구매 비중도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6일 G마켓이 발표한 올 8월 27일부터 9월 2일(추석 상품 얼리버드 프로모션)까지 추석상품 모바일 매출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260%)이상 급증했다.

추석 상품의 모바일 구매 비중은 59%로 지난해 38%에서 21% 포인트 증가했다.

해당 기간 동안 추석 상품 모바일 매출 1위는 '아동한복·소품'이 차지했다. 2위는 '건강즙', 3위는 '홍삼', 이어 '생활선물세트', '식용유선물세트' 순이다.

특히 아동한복·소품의 모바일 매출은 전년 대비 8배 이상(787%)증가했고 해당 매출의 81%가 모바일에서 발생했다. 성인용 한복과 생활한복의 모바일 매출도 208% 늘었다.

홍삼의 모바일 매출은 전년 대비 321% 신장했으며 모바일 비중은 지난해 23%에서 51%로 증가했다. 건강즙도 모바일 매출이 98%늘었고 모바일 비중이 57%를 차지했다.

식용유선물세트의 모바일 매출은 전년 대비 11배 이상(1053%) 폭등했다. 커피선물세트의 매출은 180% 늘었고 모바일 비중은 지난해 25%에서 55%로 늘었다. 생활선물세트와 바디선물세트의 모바일 매출도 각각 113%, 90% 신장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비싸도 잘 팔리는 '친환경 축산물'

친환경 한우, 매출 3배↑



최근 사육두수 감소로 한우 가격이 전년 대비 20~30% 급등하며 롯데마트(대표 김종인) '일반 한우'의 매출이 지난해 보다 4%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친환경 한우'의 매출은 전년대비 3배 이상(218.8%)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6일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발표한 올 1~8월 신선식품 매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신선식품'이 전년 동기 대비 60.4% 신장했다.

친환경 한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8.8%나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매출도 지난해 보다 51.1% 늘었다.

친환경 채소와 친환경 과일의 매출은 각각 35.9%, 13.5% 증가했다.

친환경 축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받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해 사육한 축산물을 의미한다. 일반 상품보다 가격이 20~30%정도 높은 편이지만 웰빙 소비 트렌드와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구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롯데마트는 지난 8월 친환경 삼겹살을 지난해보다 3배 많은 (50톤) 물량을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것이 햇 홍로사과' 6일 오전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햇 홍로사과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일년에 딱 한 달만 맛볼 수 있는 햇 홍로사과를 2kg에 9900원으로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똑같은 레시피는 가라"

소비자 입맛 세분화 외식업계 경쟁 치열

커피·패스트푸드 등 개인 맞춤 메뉴 선봬



/할리스커피 제공

외식업계가 개인 맞춤형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먹거리의 다양화 속에 소비자의 취향과 입맛도 세분화되고 개성이 뚜렷해지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재료를 선택해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맞춤형 레시피'를 도입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는 이달부터 소비자 개개인의 커피 취향을 고려해 전 메뉴에 커피추출 이원화 방식을 도입한다. 원두는 추출방식에 따라 다양한 맛과 풍미를 내게 된다. 소비자는 할리스커피에서 커피 음료 주문 시 에스프레소와 리스트레또의 2가지 커피추출 방식 중 원하는 타입으로 커피를 선택하면 된다.

리스트레또 샷은 원두 본연의 산미와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깊이있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에스프레소 더블샷은 커피원두가 지닌 산미와 단맛뿐만 아니라 본연의 쌉쌀한 맛까지 균형감 있게 추출해 조화롭게 진한 풍미의 바디감을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할리스커피는 커피추출 이원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리스트레또 라떼' 2종을 선보이고 커피추출 이원화의 전 메뉴 확대를 위해 준비해왔다.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에스프레소와 리스트레또의 원두 추출방식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큰 것은 아니지만 전국 매장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매장별로 교육하고 매뉴얼 하는 과정이 필요해 외식업계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날이 갈수록 개인의 취향이 다양해지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도 지난달 13일 서울 신촌점에 시그니처 버거를 선보였다. 시그니처 버거는 호주산 앵거스 비프 패티, 치즈, 야채, 소스 등 20가지 넘는 프리미엄 식재료 중 소비자가 원하는 재료를 직접 선택해 즐길 수 있는 메뉴다. 회사 측에 따르면 1000개까지 다양한 조합으로 나만의 버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제품은 출시 당일 신촌점에서만 1000개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본인의 개성과 취향을 담은 버거를 인증한 사진들이 올라올 정도로 인기다.

도미노피자도 지난 4월 고객 맞춤형 주문서비스인 마이키친 앱을 론칭했다. 마이키친은 소비자가 앱을 통해 직접 도우와 토핑, 소스 등을 직접 골라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방법 또한 3D로 구현된 입체적인 공간과 사물을 제공, 피자 메이킹 전 과정에 동적인 효과를 적용해 손가락으로 도우를 펴거나 스마트폰을 흔들어 토핑을 올리는 등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제작했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주문 관련 앱이 이미 있지만 마이키친은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해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으로 아직 초기지만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계의 매출은 소비자 입맛의 바로미터다. 그만큼 영향을 크게 받는다. 최근 관련 시장이 치열한 경쟁에 소비자 입맛까지 까다로워지면서 기획부터 제품 출시까지 소비자의 입맛과 취향을 반영하려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가짜 백수오' 환불 보상률 저조

지난 4월 발생한 가짜 백수오 논란 후 TV홈쇼핑 6개사의 환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홈쇼핑 백수오 판매액 및 환불 현황'자료에 따르면 각 사별 환불보상률은 현대홈쇼핑이 43.1%로 가장 높았다. NS홈쇼핑 27.2%, 롯데 홈쇼핑 20.3%, 홈앤쇼핑 15.8% 순으로 나타났다.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환불률은 각각 7%와 6.9%로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 유전자검사 결과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이 21개(65.6%), 백수오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8개(25%)라고 밝히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오뚜기家 장녀' 함연지, 주식부자 5위 등극

오뚜기 창업주인 함태호 명예회장의 손녀이자 함영준 회장 장녀인 뮤지컬 배우 함연지씨(24)가 연예인 주식 부자 5위에 올랐다.

6일 재벌닷컴(대표 정선섭)에 따르면 함연지 씨가 지난 4일 기준 보유한 상장 주식 가치는 366억원으로 올초보다 171억8000만원(88.5%) 증가했다. 함 씨는 배당금으로만 억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했고 최근에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에서 마리아역을 맡고 있다.

연예인 주식부자 1위는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다. 주식가치는 2362억원 규모로 연초보다 459억원(24.1%) 늘어났다.

패션그룹형지, 中 매장 확대 등 사업 속도

패션그룹형지(회장 최병오·사진)가 중국 패션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패션그룹형지는 지난 4일 대통령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참석해 중국 홍자오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한-중기업 1대1 거래상담회에서 9개 패션 유통 업체와 상담했다고 6일 밝혔다.

형지는 이번 상담을 통해 상하이 지우광백화점과 캐리스노트, 샤트렌 여성의류 등을 중심으로 특별존 구성을 위한 추가협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상해 훼이진백화점과는 10월 본지플로어 매장을 열기로 했다.

CJ오쇼핑·SK네트웍스, 패션 부문 강화

CJ오쇼핑(대표 김일천)은 SK네트웍스(대표 문종훈)와 손잡고 패션 부문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SK네트웍스의 패션사업 역량과 CJ오쇼핑이 보유한 유통 노하우를 결합해 향후 3~4년 안에 1000억원 대의 매출을 창출하겠다는 각오다.

양 사는 지난달 말 TV홈쇼핑을 통해 뉴욕 스타일 패션 브랜드 '와이앤케이'를 론칭해 목표 대비 20%에 가까운 초과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우유는 남아돌고 유제품 수입은 급증

우유 소비 부진에 매달 재고 20만t 넘어
식습관 서구화로 치즈 수입 22.3% 증가



우유 소비 부진으로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지만 치즈 등의 유제품 수입은 계속 늘고 있다.

6일 낙농진흥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량은 26만4774톤(t)으로 지난해 6월(10만1813톤) 보다 38% 증가했다.

분유재고량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20만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12월 9만2677톤이었던 우유 재고는 지난해 초부터 급증했다. 사료 값 저하와 평균 기온 상승으로 원유 생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원유 생산량은 221만4000톤으로 2013년 209만3000톤 대비 5.8% 늘었다.

우유 재고 증가에 따라 유업체별로 '원유 생산 감축 정책'을 펼쳐 올해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2분기 대비 57만146톤보다 1.6% 줄어든 56만1059톤이었다.

유업체들의 이러한 정책에도 우유 재고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가구당 우유 구매 역시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우유 월평균 구매액은 1만2099원으로 2012년 2분기 1만4447원보다 16.3%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구매량은 5.79kg에서 4.92kg으로 15% 줄었다.

다만 국내에 우유가 계속 쌓이고 있지만 유제품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다. 흰우유의 자리를 치즈나 탈지분유 등의 유제품이 대체하는 것이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주요 유제품 수입 금액은 연평균 14.9%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치즈와 분유 수입액이 각각 17.6%, 18.9% 늘었다.

반면 우유·크림과 버터의 수입액은 각각 3.9%, 3.8% 감소했다.

지난해 치즈 소비 수입 규모는 4억9700만 달러, 9만7000톤으로 수입액 기준 전체 유제품의 70.6%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치즈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5만4604톤)보다 22.3% 증가한 6만6806톤을 기록했다. 국내 치즈 소비량도 2012년 9만9000톤에서 지난해 11만8000톤으로 3년간 19.2% 늘었다. 식습관의 서구화와 외식산업 성장 등으로 치즈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입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 치즈 소비량 중 수입 비중은 2002년 60.9%에서 지난해 82.2%로 급증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단독주택 활용 길라잡이

누구라도 탐낼 집 16곳 소개
집 구하기·고치기·짓기 등
단독주택 소유 노하우 정리

2012년 '살고 싶은 집 단독주택'을 발표한 유은혜 작가의 새로운 책 '살고 싶은 집 단독주택 3년 후'가 출간됐다.

집은 점점 삶을 리모델링하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정신적, 물질적인 면에서 의미 있는 생산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책은 집을 진짜 삶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집에 대한 생각을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사고로 확장시킨다.

살고 싶은 단독주택 3년 후



유은혜 지음
동아일보사 펴냄
312쪽/1만8000원

사상 최저의 금리와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 대세'라고 말한다. 그러나 집값이 과거처럼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저자는 "대지 지분이 적고 노후했을 때 마음대로 짓기도 어려운 아파트보다 원할 때 자유롭게 변화 가능한 단독주택이 더 매력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누구라도 보는 순간 탐이 나는 집 16곳을 소개한다.

도심의 좁은 땅을 최대한 활용한 협소 주택부터 서울 아파트 값으로 마련한 수도권의 마당 있는 집, 뜻 맞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지은 동호인 주택 등 다양한 목적과 스타일의 단독주택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예쁜 집을 보고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단독주택을 구하고 집을 짓고 살기까지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담았다.

집 구하기부터 집 고치기, 집 짓기, 돈 구하기 등 단독주택 소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마곡 새병원 조감도. /이화의료원 제공

국내 첫 기준병실 '3인실' 시대 연다

이화의료원

2018년 개원 할 '마곡 병원'
모든 중환자실 1인실로 운영
환자 중심 스마트병원 설계

국내 최초로 상급 병실료를 받지 않는 3인실을 기준병실로 하고 중환자실을 모두 1인실로 운영하는 환자중심의 미래 지향적 스마트 병원이 탄생한다.

이화의료원(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김승철)은 3일 이화의료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이화의료원 마곡 병원'(가칭)의 구체적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개원 예정인 새 병원은 한국 병원의 기존 진료 시스템과 의료 문화를 바꿀 새로운 형태의 진정한 환자중심 병원을 표방하고 있다.

새 병원의 기준병실인 3인실의 병상당 면적은 10.29㎡로 의료법상 기준인 6.5㎡보다 1.5배 이상 넓을 뿐 아니라, 국내 9개 대형병원의 기준병실의 병상당 면적(7.72~10.07㎡)과 비교해도 가장 넓어, 감염 위험을 줄이고 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보다 엄격한 감염관리와 환자의 안정 유지가 필요한 중환자실의 경우에도 국내 최초로 전 병실을 1인실로 운영,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

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은 "이화의료원은 1인실 전환이 가능한 가변적 구조로 3인실을 설계해 향후 의료 제도 변화 시 1인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새 병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 우려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병원으로 설계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 관리에 대비하여 경증에서 중증까지 모든 환자의 내원 순간부터 입원,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감염관리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새 병원은 병원 안내, 예약, 입원과 퇴원, 진료결과 확인·상담 등 모든 과정이 아이패드,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는 '유비쿼터스 스마트 병원'으로 구축된다.

한편 새 병원은 강서구 마곡지역에 지하 5층, 지상 10층의 1036병상 규모로 신축되며 2018년 상반기 준공돼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명절에 고생한 아내를 위한 힐링 선물

르네상스 서울 호텔

25일부터 추석패키지 2종
스파 키트·사우나 서비스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추석을 맞아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패키지를 선보인다. 르네상스호텔 서울 모델들이 한복을 입고 추석 선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 제공

르네상스 서울 호텔(총지배인 마크웰렌)은 이달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패키지 '수고했어, 올해도!' 2가지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패키지에는 공통혜택인 유리돔을 통해 비치는 자연광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수영장과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 사우나 2인 무료 등의 혜택이 포함됐다. 또한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에서 제공되는 조식 메뉴에 한과와 송편 등이 추가됐다.

'수고했어, 올해도! 패키지 I'는 디럭스 룸 1박,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 2인 무료 조식, 객실 내 한과 6조각과 식혜 2잔 제공, 객실 내 인터넷 무료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격은 13만원(V.A.T. 10% 별도)이다.

'수고했어, 올해도! 패키지 II'에서는 기본 공통혜택을 포함해 디럭스 룸 1박,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 2인 무료 조식(만 6세 미만 자녀 최대 2인 무료 조식 제공), 객실 내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태국 럭셔리 스파 브랜드 'THANN'의 맛사지 오일이 포함된 트래블 키트 1개가 제공된다. 가격은 16만원(V.A.T. 10% 별도)이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는 여느 때보다 짧아 아내들의 명절 증후군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며 "수고했어, 올해도! 패키지는 이런 아내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최고의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남녀노소 비염·폐질환·기침에 탁월

산들 통배고

호흡기질환 맞춤형제품 판매
방부제·색소 등 첨가물 전무



폐는 우리 몸의 호흡기를 주관하는 곳으로서 호흡기 질환인 비염이나 천식이 있거나, 목을 많이 쓰시는 선생님, 집중력을 요구하는 수험생, 담배를 피우는 분들, 그리고 지하나 공기가 탁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폐 기능이 약화되므로 지속적인 운동과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해야한다.

산들건강의 '산들 통배고'는 각종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제품을 판매중이다. 체질과 연령대에 따라 자기 몸에 맞는 상품을 전문 상담사(02-778-4568)가 상담해 가장 적합한 제품을 소개한다. 무엇보다 산들통배고는 방부제, 설탕, 색소, 향료 등의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돌 지난 아이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안전하게 복용이 가능하다.

산들 통배고는 기관지와 폐, 목 건강에 좋은 100% 국내산 천연재료를 가마솥에 4일 밤낮 수작업으로 달이는 전통방식을 따른다.

산들건강(isandle.co.kr)에서는 산들통배고 500g 구매 시 변석홍옥고 스틱10g 7개 + 톳환을, 1kg 구매 시 도라지통배고120g + 변석홍옥고 스틱10g 7개+실크효모 + 톳환을 증정한다.

◇문의 : 산들건강 02)778-4568, 070-7730-5709, 홈페이지 www.isandle.co.kr /최치선 기자

star bag



첫 정규앨범 '더 레드'

걸그룹 **레드벨벳**이 오는 9일 자정 첫 정규 앨범 '더 레드(The Red)'를 발표한다. 타이틀곡은 영국 작곡가팀 런던 노이즈가 참여한 '덤 덤(Dumb Dumb)'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소녀의 귀여운 마음을 담았다.



키이스트에 새 둥지

배우 **엄정화, 엄태웅** 남매가 키이스트에 새 둥지를 틀었다. 키이스트 측은 "키이스트의 강점과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정화, 엄태웅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리우드 영화 캐스팅



'태권소녀'로 알려진 배우 **태미**가 할리우드 영화 '블러드 브라더'에 캐스팅됐다. 제작사 측은 "태미의 동양적이고 가녀린 미모, 몸매와 달리 뛰어난 액션 실력과 능숙한 영어 연기로 캐스팅했다"고 전했다.



日 투어 성황리 시작

걸그룹 **에이핑크**가 일본 첫 라이브 투어 '핑크 시즌(PINK SEASON)'을 성황리에 시작했다. 지난 3일 나고야 공연과 5일 후쿠오카 공연에는 3000여명의 팬이 모였다. 오사카, 도쿄에서의 공연도 앞두고 있다.

라디오 DJ로 컴백



가수 **유희열**이 개그맨 정형돈과 함께 라디오 DJ로 컴백한다. 두 사람은 9월 중순 첫 전파를 타는 KBS 라디오 파일럿 프로그램의 DJ를 맡아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한다. 유희열은 4년 만의 DJ 컴백이다.

오랜만에 눈에 힘 빼고 망가졌어요

영화 '치외법권' **최다니엘**

아직도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으로 최다니엘(29)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가 최근 출연한 영화 속 캐릭터는 사뭇 놀랍게 다가올 것이다. 특히 올해 개봉한 영화들에서는 그의 색다른 변신이 유난히 눈에 띈다. 5월에 개봉한 '악의 연대기'에서는 사건의 키를 쥔 인물로 퇴폐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치외법권'(감독 신동엽)에서는 '병맛' 캐릭터에 도전했다.

최다니엘은 단순한 이유로 '치외법권'을 선택했다. 이전까지의 작품에서 역할이나 연기에 너무 힘을 줬다는 생각이 있었다. "최대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찾던 중 '치외법권'과 만났다. B급 정서와 사회적인 메시지가 묘하게 섞인 작품의 성격도 취향과 잘 맞았다. '공모자들'로 친분을 맺은 임창정과의 재회도 출연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영화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사이비 종교 교주 강성기(장광)를 검거하기 위해 뭉친 두 명의 경찰 콤비의 이야기를 그린다. 최다니엘은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형사 유민 역을 맡았다. 멀쩡한 겉모습과 달리 성충동 조절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있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최다니엘은 영화에서 그야말로 몸을 던져 연기에 임했다. 올 누드로 펼친 베드신, 그리고 광란의 파티 장면 등이 그렇다. 유민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연기 스타일이 전혀 다른 임창정과의 호흡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제가 목장에 갇힌 양떼라면 임창정 선배는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죠(웃음). 서로 달라서 오히려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대본은 버리고 연기하라'는 선배들의 말뜻을 창정이 형과의 작업으로 알게 됐어요."

돌이켜보면 스크린 속에서 최다니엘은 익숙한 '로맨틱 가이'가 아니었다. 첫 주연 영화였던 '시라노; 연애조작단'을 제외하면 '공모자들' '열한시' '악의 연대기' '치외법권' 등 스릴러가 필모그래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캐릭터도 늘 새로웠다. 물론 최다니엘은 "의도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작품들이 최다니엘의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줬음은 분명하다.

다만 흥행 성적이 아쉬웠다. 최다니엘의 도전과 변신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못한 이유다. 욕심이 생길 법도 하다. 그러나 최다니엘은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다"며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트콤으로 과분한 사랑을 얻었잖아요. 사실 그때 힘들었어요. 갑자기 바뀐 삶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죠. 본의 아니게 실수도 많이 했고요. 오해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편해요. 주어진 일을 하면서 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성공해서 더 많은 걸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다면 '악의 연대기' 같은 작품은 못 했을 거예요."

한때는 "발버둥쳐도 안 되고 오해도 안 풀려서 모든 걸 포기한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최다니엘은 한층 더 긍정적인 태도로 배우로서의 삶에 임하고 있다. 그런 변화가 필모그래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 최다니엘은 군대에 입대할 계획이다. 2년 뒤에는 보다 여유롭고 편안한 배우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가볍게 즐길 영화 찾던 중
B급 정서·사회적 메시지 끌려

경찰대 수석졸업 형사 유민역
올 누드·광란의 파티 등 열연

임창정과 호흡… 많은것 배워
욕심? 주어진것 열심히 할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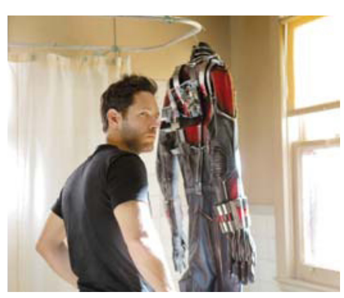
극장가 다시 사로잡은 마블 히어로

'앤트맨'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앤트맨'이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앤트맨'은 지난 3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라 주말까지 흥행을 이어갔다. 5일 토요일에는 48만7373명의 관객을 모았다. 또한 6일 오후 12시10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107만1425명을 기록했다. 개봉 4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앤트맨'은 전과 경력이 있지만 딸을 위해 평범한 가장으로 살기로 결심한 스캇(폴 러드)이 행크 핌 박사(마이클 더글라스)로부터 세상을 구할 영웅이 돼달라는 제안을 받은 뒤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영화는 북미 개봉 당시 첫 주 누적 흥행 수익 5722만 달러를 거둬들이며 압도적인 흥행 파워를 보여줬다. 국내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해 마블 히어로 영화에 대한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했다.

2위는 '베테랑'이 차지했다. '베테랑'은 5일 토요일에도 25만6404명의 관객을 모으며 식지 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누적 관객수는 1165만명으로 '해운대'의 기록을 넘어 역대 한국영화 흥행 10위에 올랐다.

3위는 신작 '오피스'가 차지했다. 5일 토요일 하루 동안 모은 관객은 8만4806명이다. '뷰티 인사이드'와 '암살'은 각각 4위와 5위에 랭크됐다. '뷰티 인사이드'는 누적 관객수 171만을 기록하고 있다. '암살'은 1243만 관객을 모았다. /장병호 기자


OFFICIAL SELECTION
FESTIVAL DE CANNES
제68회 칸영화제 특별상
★★★★★
삶의 여정을
우아하게 탐구하는
걸작!
- CANNES
감동적이고 섬세한,
괴물 같은 작품!
- THE PLAYLIST
절묘한 유머와
드라마의 조합!
- HOLLYWOODREPORTER
일생에
한 번은 마주할
어느 날
나의 어머니
mia madre
〈아들의 방〉 난니 모레티 감독 작품
절찬상영중,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세이상관람가 수입·배급 (주)티캐스트 tcast cinecube



국립중앙도서관 '책 장터' 열린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은 오는 20일 잔디광장에서 '책 장터'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서의 달을 맞아 책 읽는 분위기와 지역사회 문화교류 확산을 위해 한국사서협회, 비영리공익재단인 아름다운가게, 서초구 공공도서관 등 일반 국민이 직접 만드는 자발적인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또 "이번 행사는 도서관과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손 때 묻은 책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과 누리는 나눔, 그리고 자원 재활용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를 통해 선착순 30명까지 받는다. /장병호 기자 solanin@

새로 나온 책 다자이 오사무·보들레르의 고전 속으로

사양



창비/다자이 오사무 지음·신현선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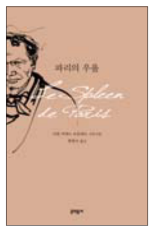
'사양'은 '인간실격'으로 잘 알려진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페미니스트적인 진면모를 새롭게 조명한 중단편 선집이다.

1909년 태어난 다자이 오사무는 네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한 '우울한 파멸형 작가'로 여겨진다.

그러나 2009년 탄생 100주년을 기점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일본의 패전을 진지하게 성찰하며 스스로를 보수파라 선언했으나 새로운 사조, 새로운 현실, 새로운 문화를 갈망했으며 새로운 표현을 추구한 '청춘'의 작가라는 것이다.

'사양'은 다자이 오사무의 후기 대표작 중 여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는 10편의 작품을 담았다. 그의 최초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등롱', '인간실격'과 함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표제작 '사양' 등을 수록했다. 367쪽·13000원.

파리의 우울



문학동네/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지음·황현산 옮김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의 산문시 50편을 수록한 시집 '파리의 우울'이 불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황현산의 번역으로 출간됐다. 기존 번역본들과는 달리 면밀하고 충실한 주해를 함께 담았다. 근대 상징파 시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들로 문학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작품이다. 284쪽·13000원.

홍익희의 유대인 경제사 1·2권



한스미디어/홍익희 지음

2013년에 나온 '유대인 이야기'가 전 10권의 완전판인 '홍익희의 유대인 경제사'로 새롭게 출간된다. 핍박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주무르게 됐는지를 입체적으로 담고 있다. 유대인을 매개로 5000년 세계사를 기록한 책이다. 1권 352쪽·18000원, 2권 376쪽·18000원.

더 나은 삶을 위한 철학의 다섯 가지 대답



더 퀘스트/뤽 페리, 클로드 카플리에 지음·이세진 옮김

'더 나은 삶을 위한 철학의 다섯 가지 대답'은 인류가 어떻게 좋은 삶을 추구해왔는지를 크게 다섯 시대로 나눈 서양 철학사를 통해 살펴보는 책이다. 서양 철학사를 다루는 입문서를 넘어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356쪽·15000원.

마음이 보이면



스윙밴드/오리여인 지음

'마음이 보이면'은 SNS 인기 작가인 오리여인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에세이다.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든 삶도 마음을 돌아보면 행복이 곁에 있다고 믿는 작가의 긍정적인 생각을 담은 책이다. SNS에 연재된 글 중 사랑 받은 38개를 골랐으며 12개의 글을 새롭게 썼다. 340쪽·1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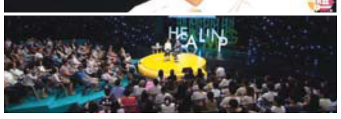
TV 하이라이트

'트로트 퀸' 장윤정과의 대화

◆ SBS '힐링캠프-500인'

오후 11시15분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퀸' 장윤정이 500인의 MC와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 장윤정은 남편 도경완과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엄마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괜찮아' 철학을 설파한다. 연하남편을 조련하는 비법으로 '특급 칭찬'을 소개한다. 자신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남편 도경완을 향한 감사한 마음도 전한다.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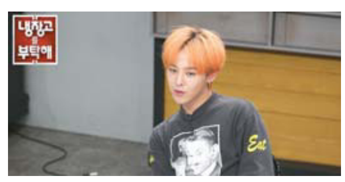
어떤 말을 해도 돌부처 같은 남편 때문에 고민인 한 30대 주부가 그동안 서운했던 점을 고백한다. 남편이 심지어 딸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구경만 했다며 하소연한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가족 같은 사장님에게 대접할 만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이에 김풍과 이찬오는 양현석의 취향을 저격할 요리로 맞대결을 펼친다.



◆ JTBC '비정상회담'

오후 11시15분

G12는 각국의 왕들이 즐겼던 기상천외한 보양식을 알린다. 중국 대표 장위안은 전통 보양식을 직접 만들어 스튜디오에서 대접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channel J
05:00 KBS 뉴스 05: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재)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촌촌촌 11:55 바른말 고운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다 잘될 거야 (재)	05:00 MBC 뉴스 05:10 MBC네트워크특선 사람, 산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5:00 SBS 5 뉴스 0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건강의 품격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0:25 마녀사냥 (재)	05:50 천기누설(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1:50 아궁이 (재)	05:00 명단공개 (재) 06:00 집밥 백선생 (재) 06:50 오 나의 귀신님 (재) 08:00 삼시세끼 어촌편(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5:00 더 프렌즈 in 돗토리 06:00 더 호텔 07:00 앨리스의 가시 07:50 수수께끼의 전학생 08:00 연애시대 08:50 수수께끼의 전학생 09:00 마츠리 시리즈 10:00 식신로드 11:00 WOMAN 11:50 수수께끼의 전학생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재) 15:00 한국인의 밥상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역사저널 그날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시간을 달리는 TV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특선다큐<세계대전> 15:05 후토스 미니미니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13:10 꾸러기 식사교실 13:40 뚝?뚝! 키즈스쿨 스페셜 14:30 와일드 패밀리(재) 15:00 MBC 뉴스 15: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15:40 문화사색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순간포착 스페셜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재) 16:00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12:00 박스 (재) 13:2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2:20 두번째 스무살 (재) 15:00 문제적 남자 (재) 16:30 코미디 빅리그 (재) 17: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3:00 하나사키마이가 잠자코있지않아 S1 14:00 앨리스의 가시 14:55 해피라이프 16:00 Wonderful 일본 여행 16:55 수수께끼의 전학생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우리말 겨루기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3:00 KBS 뉴스라인 23:40 TV, 책을 보다 24:20 세계를 바꾼 명탐정 셜록 홈스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 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500회 위기탈출 올스타 넘버원 22:00 별난 며느리 23: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4:3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55 특파원 현장보고 (재)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정 23:15 MBC 다큐스페셜 24:15 MBC 뉴스 24 24: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24:50 스포츠 특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2:00 미세스캅 23:15 힐링캠프 500인 24:35 나이트라인	18:30 유자식상팔자 (재) 19:55 JTBC 뉴스룸 21:40 냉장고를 부탁해 23:00 비정상회담 (60회) 24:30 라스트 (재)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1:5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23: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24: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9:40 리틀빅 히어로(재) 20:40 명단공개 21:40 집밥 백선생(재) 23:00 막돼먹은 영애씨 14 24:20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재)	18:00 WOMAN 19:00 하나사키마이가 잠자코있지않아 S1 20:00 진짜 사랑 21:00 여성룰 22:00 하나사키마이가 잠자코있지않아 S1 23:00 위자료 변호사 23:55 우로보로스

7일 (월)

태극전사, 레바논 원정 징크스 깰까

1993년 美월드컵예선 이후 원정 경기서 내리 패배
손흥민 대신 구자철·박주호 가세… 내일 맞대결

한국 축구 대표팀이 레바논에 입성했다. 22년 만에 원정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오는 8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레바논 남부도시 시돈에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G조 3차전 레바논과의 경기를 펼친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7위이고 레바논은 133위다. 두 나라의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은 7승 2무1패로 앞서 있다. G조 중간 순위에서도 한국은 2승으로 쿠웨이트와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면 레바논은 1승1패를 기록해 5개 나라 가운데 3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한국은 레바논 원정 경기에서 이상하리만큼 힘을 쓰지 못했다. 조광래 감독이 대표팀을 지휘하던 시절인 2011년 11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에서 1-2로 졌다. 최강희 감독이 설욕을 다짐하며 2013년 6월에 다시 베이루트를 찾았으나 1-1로 비겼다. 2004년 독일 월드컵 예선 원정 경기에서도 1-1로 승부를 내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레바논 원정에서 이긴 것은 1993년 5월 미국 월드컵 예선이 마지막이다.

최근 세 차례 원정에서 2무1패를 하는 동안 홈 경기에서는 3전 전승을 거뒀다. 또한 세 경기에서 11골을 퍼붓고 한 골도 내주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레바논 원정에서의 부진은 '징크스'나 다름없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5일 오후(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무니시팔 스타디움에서 몸을 풀고 있다. 대표팀은 8일 밤 11시(한국시간) 레바논 시돈의 시립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원정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이번 경기는 조 1위를 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한국과 함께 G조 공동 선두를 달리는 쿠웨이트는 같은 날 약체 라오스를 상대한다. 만일 한국이 이번 레바논 원정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 조 1위를 쿠웨이트에 내줄 수도 있다. 쿠웨이트 원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레바논 원정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

이번 레바논 원정에는 손흥민이 빠진다. 대신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박주호(도르트문트)가 새로 가세한다.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했던 라오스전과는 달리 레바논과 경기에서는 2선 공격진에 서게 될 구자철과 수비형 미드필더 박주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팀은 5일 오전 레바논 베이루트 도착 후 오후 훈련을 통해 현지 적응에 나섰다. 가벼운 러닝에 이어 라오스전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은 모여서 족구 시합으로 몸을 풀었고 다른 선수들은 슈팅 훈련을 약 1시간 정도 했다.

대표팀은 6일에도 베이루트 시내에서 훈련한다. 이어 경기 전날인 7일 시돈으로 이동해 공식 훈련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추신수, 시즌 최고 타율 또 경신

타율 0.253… 강정호, 왼손 투수 만나 무안타 침묵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사진)가 시즌 최고 타율을 다시 경신했다.

추신수는 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방문 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2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5타수 3안타를 치며 올 시즌 처음으로 타율 2할5푼대에 진입(0.252)한 추신수는 이날 경기에서의 활약으로 타율을 0.253으로 더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1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첫 타석에 등장해 볼넷을 골라 이날 첫 출루에 성공했다. 이어 프린스 필더의 볼넷으로 2루에 도달한 뒤 애드리언 벨트레의 중전 안타 때 홈을 밟았다. 추신수의 시즌 67번째 득점이다.

5회에서는 선두타자로 나섰다. 위버의 시속 106㎞ 느린 커브를 잡아당겨 우전안타를 만들었다. 그러나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작성에는 실패했다.

텍사스는 1-1로 맞선 8회말 1사 1, 3루에서 나온 루그네드 오도르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얻어 2-1로 승리했다.

한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는 같은 날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라이벌전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피츠버그는 1-4로 패했다. /장병호 기자



조던 스피스, PO 연속 컷 탈락 '충격'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서 부진… 타이틀 비상 걸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와 US오픈을 제패하는 등 4승을 거두고 상금랭킹 1위를 달리는 조던 스피스(미국·사진)가 플레이오프에서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다.

스피스는 6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 TPC(파71·7천214야드)에서 열린 PGA투어 플레이오프 두 번째 대회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2오버파 73타를 쳤다. 합계 6오버파 148타로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열린 플레이오프 첫 번째 대회 바클레이스에서도 스피스는 2라운드 합계 7오버파를 쳐 컷 탈락한 바 있다.

스피스는 PGA 투어 상금랭킹 1위, 다승 1위, 그리고 세계랭킹 1위로 플레이오프를 시작했다. 그러나 바클레이스 컷 탈락으로 세계랭킹 1위를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에 내줬다. 플레이오프 우승은 물론 상금왕과 다승왕, PGA 투어 '올해의 선수' 등 각종 타이틀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도 하위권으로 추락해 위신을 구겼다. 3오버파 74타를 친 매킬로이는 중간합계 2오버파 144타로 공동60위까지 밀렸다. 12언더파 130타로 단독 선두에 나선 찰리 호프먼(미국)과 15타차다.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상승세를 탄 세계랭킹 3위 제이슨 데이(호주)는 1라운드 3언더파에 이어 이날도 3타를 더 줄여 공동10위(6언더파 136타)를 달렸다.

세계랭킹 1~3위가 플레이오프에서 처음 맞붙은 이 대회에서 데이는 매킬로이와 스피스에 완승을 거뒀고 플레이오프 대회 2연승의 불씨를 살렸다.

/장병호 기자

루니 활약에 잉글랜드 유로 본선 진출

잉글랜드가 유로(유럽축구선수권대회) 2016 예선에서 산 마리노를 완파하고 본선에 진출했다.

잉글랜드는 6일 오전(한국시간) 산 마리노의 스타디오 올림피코 세라발레에서 열린 유로 2016 E조 예선 7차전에서 산 마리노에 6-0으로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잉글랜드는 7전 전승(승점 21)으로 조 1위를 질주했다. 남은 경기(3경기)에 상관없이 사실상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쥔 잉글랜드는 전반 11분 만에 얻은 페널티킥을 웨인 루니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1-0으로 앞서나갔다.

전반 30분 상대 자책골로 전반을 2-0으로 마친 잉글랜드는 후반 시작과 함께 로스 바클리가 추가골(후1분)을 넣었다. 이어 테리 월콧(후23분·후33분), 해리 케인(후32분)이 연속골을 터뜨려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루니는 이날 득점으로 A매치 49호골을 기록하며 '전설' 보비 찰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장병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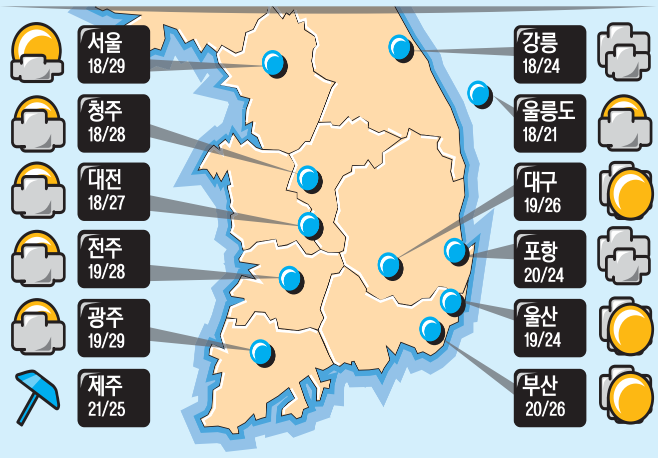


6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유로 2016 E조 예선 7차전 잉글랜드와 산 마리오의 경기에서 잉글랜드의 웨인 루니(오른쪽)가 골을 몰고 있다. /AP 연합뉴스

날씨

9/7 월 일출시각 06:07 일몰시각 18:5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1		8
				6	1			
5						6	9	
	5		7	3				
	4	9	6		8	3	7	
				4	2		6	
	6	4						1
			2	9				
8		3						6

		1			3	7		
5	2		9	6				4
		3					2	
		9	3					
	1		6		4		5	
					2	9		
	7					2		
1				5	6		8	7
		2	8			6		

스도쿠 정답

7	9	6	3	2	5	1	4	8
4	8	2	9	6	1	5	3	7
5	3	1	4	8	7	6	9	2
6	5	8	7	3	9	2	1	4
2	4	9	6	1	8	3	7	5
3	1	7	5	4	2	8	6	9
9	6	4	8	5	3	7	2	1
1	7	5	2	9	6	4	8	3
8	2	3	1	7	4	9	5	6

9	4	1	5	2	3	7	6	8
5	2	8	9	6	7	1	3	4
7	6	3	1	4	8	5	2	9
6	8	9	3	1	5	4	7	2
2	1	7	6	9	4	8	5	3
4	3	5	7	8	2	9	1	6
8	7	6	4	3	1	2	9	5
1	9	4	2	5	6	3	8	7
3	5	2	8	7	9	6	4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m in over my head

A: Things are finally slowing down at work! How bout you?

B: Lucky you. I barely have enough time to shower in the mornings…

A: I see they work their junior staff pretty hard!

B: I'll say! And they want me to take all these foreign language tests…

A: Huh? I thought once you got the job you wouldn't have to worry about that kind of stuff.

B: So did I. Times sure have changed. Even after being hired they constantly check your specs.

A: So it seems… How are you coping?

B: Not well. Everyone here is really good at English, Chinese, and even Japanese! I can't keep up with them. **I'm in over my head.**

A: I started taking Chinese classes on the weekends. Any interest in joining?

B: Lots… but I work weekends too.

난 도저히 감당 안돼

A: 이제야 일이 좀 천천히 돌아가네! 넌 어때?

B: 좋겠수. 난 아침마다 샤워도 간신히 하는데…

A: 부하 직원을 아주 제대로 굴리나 보네!

B: 그렇다니까! 거기다 온갖 외국어 시험들을 보라질 않나…

A: 그래? 일단 취업한 다음에는 그런 거 걱정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B: 나두. 시대가 변하긴 했나 봐. 취업된 후에도 계속 스펙을 체크하니까.

A: 그런 거 같네… 넌 어떻게, 견딜 만해?

B: 좋지 않아. 여기 모두 영어, 중국어, 심지어 일본어도 잘해. 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 **난 도저히 감당이 안돼.**

A: 나 주말마다 중국어 수업 듣기 시작했는데. 같이 해볼 맘 없어?

B: 많지… 근데 난 주말에도 일해야 해.

* bout: about의 약어
* specs: specifications의 약어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어머니 49재를 못드려 마음이 죄스럽습니다
좋은 날 정해 천도 재를 지내도록 하세요

사랑방 여자 55년 12월 7일 음력 22시 10분경

Q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61세인 여성입니다. 어머니가 생시와 같이 꿈에 나타나시고 있으며 어머니의 돌아가실 때 모습이 애처롭게 재현돼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도 다른 노친네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생각이 나서 불효를 한 제가 마음이 아파오고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있었는데 어제 백중 재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지인을 통해서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49재라든가 묘 자리를 변변히 쓰지도 못 하고 화장해서 산에 뿌려버리는 불효를 저질렀는데 어찌하면 되나요.

A 고인이신 부모님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백중 재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이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효행의 마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고 하였습니다.

불자라면 잘 알겠지만 하안거에서 해제하신 스님들이 백중 재를 지내면서 영가에 대한 천도 재를 지내는 것에 일반 신도들이 지난 과거 부모님에게 효를 다 하지 못하여 한이 맺혀 있고 제대로 모시지 못한 서운함을 백중 재를 통하여 공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도 재를 정식으로 올리는 경우 오곡백과를 차리고 스님들 여러분이 영가를 모셔와 위로 하여 드리는 예식과 천도하여 편안한 곳으로 인도 하는 것이 경비가 수월찮게 들어가는데 일반 신도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한이 맺힌 영혼들을 위해 함께 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49재도 못 올려 드리고 묘 자리도 제대로 모시지를 못하였으니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되고 있으며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시지를 못하여 꿈에 자주 나타나신다고 봅니다. 사주구조 역시 을목(乙木)일간이 추운 겨울에 태어났으므로 신약(身弱)한데 조상과 부모 궁에 충살이 자리를 하고 있으며 인수(印授:나를 생해주는 오행)격이라 모질지가 못하고 예의와 의리를 존중하는 학자 유형입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위법하여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성미를 갖고 있지요. 그러므로 부모님 불효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가피를 입고자함도 있겠으나 심리적인 면에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반드시 좋은 날을 정하여 천도 재를 지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7일 (음 7월 2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상하가 단결하여 만사형통입니다. **60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72년생** 부귀공명을 누리게 됩니다. **84년생** 붙어봐야 승산 없고 이겨 봐야 덕이 없습니다.

소 **49년생** 노력이 빛을 보고 성공하게 됩니다. **61년생** 처음은 어렵지만 갈수록 좋아집니다. **73년생** 거래나 소송은 미루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85년생** 모든 일이 잘 이뤄지니 기쁜 하루입니다.

호랑이 **50년생** 피하기 어려운 일이니 의연하게 받아들이세요. **62년생** 미련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4년생** 깊은 산중에 홀로 있는 격이니 외롭습니다. **86년생** 결과가 좋으니 자신 있게 추진하세요.

토끼 **51년생**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이 필요합니다. **63년생** 장기적인 관망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75년생** 점진적으로 도약하는 하루입니다. **87년생** 노력한 만큼 결실도 따라줍니다.

용 **52년생** 도와주어야 할 곳은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64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76년생**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뱀 **53년생** 음식과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65년생** 신뢰를 지켜야 결과가 좋습니다. **77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이득을 봅니다. **89년생**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말 **54년생** 동업자를 만나 일이 순조롭습니다. **66년생** 부동산이나 금전문제 주의하세요. **78년생**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90년생** 순간적인 기지로 어려움을 쉽게 벗어납니다.

양 **55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67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는 게 이득입니다. **79년생**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91년생** 소신 있게 추진하면 끝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모든 것이 순탄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이성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지금은 윗 분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닭 **57년생**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6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지만 바라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81년생** 모든 것이 길하니 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운도 훤하고 마음도 훤합니다.

개 **58년생** 도움을 받아 좋은 거래가 성사됩니다. **70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마음에 두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94년생** 때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빠른 결정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1년생** 많은 변화 속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83년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95년생** 일보다는 마음 편히 쉬는 게 좋습니다.

1000만 관객 영화가 '독이 든 사과'인 이유



양경미의 문화톡

하반기 한국영화는 그야말로 대박이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한국영화계는 '한국영화 위기설'을 운운했다. 그동안 한국영화 점유율이 꾸준히 50%를 상회했던 것에 반해 2015년 상반기는 41%에 그쳤고 한국 상업영화 중 300만 관객을 넘긴 작품은 단 2편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외화는 '어벤져스2'가 1000만 명을 넘겼고, 300만 명을 넘는 영화도 4편씩이나 나왔다. 외화로 관객을 뺏긴 한국영화계는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머지않아 한국영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영화는 7월을 기점으로 역전됐다. '연평해전'이 600만 명을 넘겼고 8월에는 '암살'과 '베테랑'이 각각 1000만 관객을 넘겼다. 여기에 9월 추석 개봉을 앞둔 영화 '사도'도 조심스럽게 트리플 1000만 영화로 예측되고 있다. '왕의 남자'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이준익 감독과 1000만 관객의 주역인 배우 송강호·유아인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는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부문의 한국영화 출품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영화는 위기설을 잠재우고 과연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1000만 관객 동원 영화의 등장은 한국영화계를 위해 바람직한 것일까? 물론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좋은 시그널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먼저 다른 영화들은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흥행에 성공한 1000만 관객 동원 영화들은 모두 대기업이 제작하고 상영관도 해당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1000만 관객 영화는 수직화된 제작·상영 구조의 결과물이다. 1000만 관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50%이상의 스크린을 점유해야만 한다.

1000만 관객 한국영화가 등장하면 한국영화 점유율이 상승한다. 전체 규모로 봤을 때 한국영화산업의 성장률 또한 높아진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소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규모가 작은 영화, 다양성 영화들은 스크린을 배정 받지 못해 상영기회조차 잃게 된다. 1000만 관객 영화는 영화 제작과 배급시스템의 양극화를 부추기며 선순환적 영화생태계를 교란한다. 1000만 관객 영화가 나오면 마치 한국영화산업이 장점이 큰 것처럼 평가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한국영화산업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관객의 입장에서도 영화를 폭넓게 관람할 수 없다. 극장에는 블록버스터 할리우드영화와 1000만 관객 한국영화로 나뉜다. 예술성보다는 상업성 높은 장르영화 뿐이다.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영화 관객은 여러 나라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영화를 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한국영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배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 우리 관객들도 1000만 관객 영화라는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리딩뱅크' 신한銀, 앞뒤 다른 '따뜻한 금융'



기자 수첩

김 보 배 <경제부>

시중은행들의 순이익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자랑하는 신한은행이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부금을 집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따뜻한 금융'을 강조해온 신한은행이지만 사회공헌의 기본인 기부금 집행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 순이익 3278억원 가운데 12억원(0.37%)을 기부했다. 주요 은행들의 순이익 부문에선 신한은행이 하나은행(3118억원), 기업은행(2667억원), 국민은행(2569억원), 우리은행(1999억원)을 제쳤지만 기부금 순위로는 최하위다.

기부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순이익의 9.03%(181억원)를 기부금으로 집행했다. 이어 국민은행 54억원(2.11%), 기업은행 38억원(1.43%), 하나은행 22억원(0.72%)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금융보국'의 창업정신에 따라 '따뜻한 금융'을 매해 실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은행장도 항상 '고객이 체감하는 따뜻한 금융'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이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업계 최고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도 기부금에는 인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당기순이익 1조3414억원을 달성, 이중 357억원(2.66%)을 기부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88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이 중 6% 이상을 기부했다.

게다가 신한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4333억원 가운데 125억원(0.87%)을 기부하며 1년 만에 기부금 규모를 3분의 1수준으로 줄였다.

취재 과정에서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제로는 회계 상 수치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항목에 분산돼 책정되므로 기부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올해 하반기 은행업계는 '계좌이동제' 시행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벌써 하나·외환 통합으로 자산규모 1위에 올라선 KEB하나은행, '리딩뱅크' 탈환을 예고한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에 도전장을 낸 상태다.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실적쌓기에 치중한 경쟁시대는 지났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에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신한은행은 스스로 강조해온 '따뜻한 금융'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향한 것인지 되돌아보기를 기대한다.

社 說

미국은 금리인상 서두르지 말아야

지금 세계의 하늘에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2자루 걸려있다. 하나의 칼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칼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자루의 칼은 현재 세계각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큰 요인이다. 우선 중국의 성장둔화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나라 경제와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모두 경기부진 압력에 직면해 있다. 산유국을 비롯한 자원보유국들도 국제적인 가격하락으로 말미암아 재정고갈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제 투자자금이 신흥국으로부터 유출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정말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들에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통화가치 하락에 이어 경기침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국제교역도 위축되는 등 세계경제에는 또다시 찬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계경제에 찬 바람이 불면 그 냉기는 돌고 돌아 결국 미국까지도 미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경제가 상당히 호전돼 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유지돼 온 '제로금리'에서 벗어나고픈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나 세계경제 상황을 볼 때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미국에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하라고 여러차례 권고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1990년대말 아시아 각국이 외환위기에 시달릴 때도 금리인상을 자제한 바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는 세계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에도 미국은 '기다림의 미덕'을 발휘할 때다. 적어도 중국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세계 경제가 선순환에 들어설 때까지는 금리인상을 보류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올해는 아닌 듯하다.

'명의 대여' 은행 대출, 변제 책임은?

생활법률

A씨는 얼마 전 친구 B씨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한도액이 초과한다는 것. 해당 은행은 B씨가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A씨의 명의를 빌리는 사실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의 대여를 적극 권유했다.

은행까지 나선 마당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A씨는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그런데 한동안 대출금 이자를 갚아 나가던 B씨가 사업 부도로 지급능력을 상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에선 A씨에게 대출금 변제를 청구한 상태다.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는 동일인의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양해 아래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 효력에 관한 문제다.

이 사례에서 A씨는 형식상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인 B씨가 되는 셈이다.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대출약정은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민법 제 108조 2항은 A씨처럼 의도 없이 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채무관계에 대해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A씨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명의 대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즉 은행이 대출약정에 대한 A씨와 B씨의 실질적 관계를 인지, 대출한도액 위반 방편으로 명의대여를 적극 권유했기 때문에 A씨는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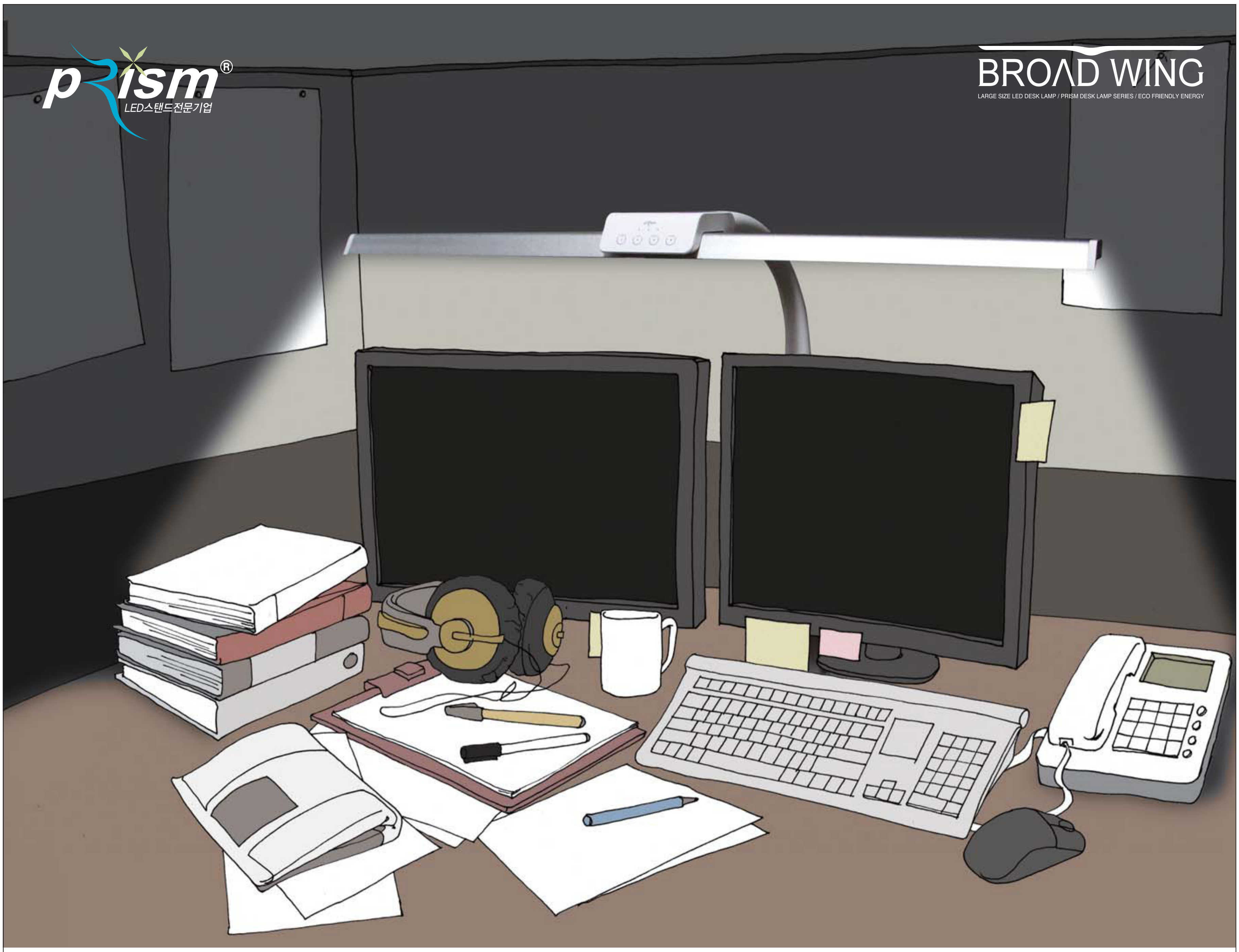
인 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재정정보과장 김우중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박영식
◇중소기업청 △과장급 전보 ▲중소기업정책국 지역특구과장 서기관 이상헌
◇산림청 △과장급 ▲대변인 조준규 ▲해외자원개발담당관 임하수 ▲산림교육문화과장 이순욱 ▲산림복지시설사업단 시설과장 김경목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전출 인민호
◇한양대 △서울캠퍼스 ▲도시대학원장 겸 부동산융합대학원장 김홍배 ▲창의융합교육원장 정기수 ▲사회교육원장 겸 원격사회교육원장 유성호 ▲교무1부처장 신흥수

부 고

▲권태숙씨 별세, 이어룡(대신금융그룹 회장)·제순(L&I갤러리 대표)·제분·제봉(울산대학교 교수)·제영·제용(가톨릭 관동대학교 교수)·영숙·제형·제성 모친상=5일 오전 1시 1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일(월) 오전 7시(02-2072-2091
▲김삼례씨 별세, 최영철(G1 강원민방 편성제작국 국장) 학철(글로벌 미션로지스틱스 대표)씨 모친상=6일 오후 1시 12분, 춘천호반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7시 (033)252-0046
▲이소영씨 별세, 남성우(한화큐셀 대표이사)씨 부인상, 남기찬(학생) 기명(학생)씨 모친상=6일 오전 8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30분 (031)787-1500

기사제보=02)721-9832



언제,
어디서든

듀얼도 자신있다



EMC Registered

No.1

국내 1위, LED조명의 세계적 名家 프리즘에서 만든
800mm 초대형 프로페셔널 스탠드「브로드윙」

Venture for Tomorrow 내일을 향한 희망에너지 |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세계속의 경기도

LSP–9000 DC24V/0.8A/20W

학습 목적에 따라 3가지 빛컬러 변화가능 & 컬러별 3단계 조도조절!!

Cool(수리) 색온도 : 6500K ~ 6900K	Bright(언어) 색온도 : 4500K ~ 4900K	Warm(창의력) 색온도 : 2600K ~ 2900K
논리적 사고 및 수리적 계산영역	**언어 및 암기의 영역**	**창의, 예술 및 휴식의 영역**
파란빛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져 뇌와 사고속도를 높여주어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주황빛은 언어 및 암기영역으로 어학 학습과 같은 상황에 도움을 줍니다	붉은빛은 창의, 예술 및 휴식 영역으로 정신적 피로를 덜 느끼며 상상력이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드윙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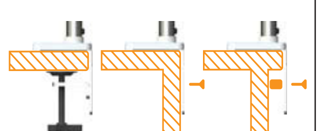
※학생, 연구원, 설계실, CEO 책장 등 다양한 분야 다목적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 전문가들의 선택 | 학습・업무용 | 넓은 시야 확보 | 스케일의 차별화

어떠한 책상에도 설치가능

다양한 설치 방식



클램프 방식 | 볼트 설치 방식 1 | 볼트 설치 방식 2

| 신제품 출시 특별판매가 | 브로드윙 : ₩66,000X3 (카드 무이자 3개월) | 24시 무료 주문전화 | 080·570·2222 www.arambi.kr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4–서울중구–0505호 ■상호명 : (주)아람비 ■대표자 : 최은희